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戰時計畫經濟 全面的再編成

一

事變二周年을 지난 오늘에 잇서 時局은 抗日蔣政權相對에 止치안코 强大한 第三國을 制壓하여써 東亞新秩序建設 한거름더나가서 世界新秩序建設의 重責을 가지고 國運을 賭하는 大戰爭에 對處할만한 戰時體制를 完成할 時期에 當面함을 기피 認識하여야할것이다. 따러서 지금까지의 應急的局部的對策에서 恒久的全面的對策을 確立하여 戰時計畫經濟를 再編成할 必要가 提唱된것이다. 事變當初는 國際收支를 惡化시키지안코 軍需資材를 急激大量供給하는데만 全力을 다하엿고 그다음으로는 物資調節 資材供給 國民貯蓄의 方向으로 進捗되기는 하엿섯지만 事變長期化에 對備키爲해서는 좀더 計畫性잇는 統制經濟를 强化케될것이다.

二

我國의 經濟力을 脆弱하다고 危懼를가진者 업지안흔데 그根據는 어데잇섯느냐하면 國際收支關係의 窮塞과 國內戰時統制의 矛盾露呈에 잇섯다. 이것이어데 基因되엇느냐 하면 統制經濟運營方法의 缺陷에 基한 點이 만헛섯든때문이엇스나 事變第三年에 當해서는 어며 立案決定된 生産力擴充計畫의 前進、物價問題의 適正한統制、總動員體制의 人、物、金三要素 全面的整備에 邁進해서 長期建設戰 遂行에 조고마한 支障도 업도록만치 我國經濟力이 强大한點을 內外에 事實로서 證明해야할것이다。全面的으로 計畫性이 不足햇던때문에 民需關係로 統制圈外에잇게되어 有機性이업섯고 物資、資金兩方面에 中心을두엇섯기때문에 勞務、生産設備、運輸力等의 技術能率에關한 統制가 업섯스며 國內生産品에 對한 統制가 볼만한것이 업섯고 消費部門에對한 統制未着手로 物資統制가 完璧을期치 못하엿섯스나 이제와서는 物資의 需給關係가 現實的으로 緊迫해지고 物價騰勢도 放置할수업게되엇스며 民需로 軍需를 調節할條件이 대단히狹少해진만큼 統制全般을 計畫的으로 하게된것이다。

三

政府는 物價政策大綱、物動計畫、國家總動員法全面發動에 依하여 以上諸矛盾을 除去하고統制經濟를 計畫的으로 樹立實行에移코잇거니와 어느程度까지 그때그때의 必要에應해서 從來의經濟機構를最少限度로 統制하고 部分的으로 改訂하던從來의 體制를 根本的으로 再編成하여 半恒久的計畫經濟로 統制를 强化하자는데잇다。物動計畫은 正確、精密을 要하며 軍需 應急的措置에서 一步를進하여 輸出振興 生産力擴充 大陸開發에 要하는物資의 供給圓滑은 勿論 民需도 國民生活의 長期持久態勢에 必要한 最少限度의 需給을 確保保障하는同時 그計畫의 對象은 物資、資金 兩部門에 止치안코 勞務 技術 生産設備 運輸力等 綜合的 有機的으로 統制하여 그 立案 實施의 機關을 一元的으로 統一强化하므로써 統制强化로 생기기쉬운 모든摩擦과障碍를 最少限度에 止케하며 또適當한 補强政策을 實施하여 綜合的 物價對策의 貫徹을 確保키에 萬全을期케될것이다。

蘇蒙軍의最後陣地 발사갈高地를奪取

할하河로退却敵을猛追擊

【新京八日發同盟】關東軍司令部七月八日午後五時四十五分發表 一、今八日拂曉我軍은 발사갈高地敵最後 陣地를奪取하엿다 二、敵은 今朝來退却을開始하여 我軍은할하河로向하여 敵을追擊中이다

【발사갈西高地에서八日發同盟】훌스텐河合流點附近의 橋頭陣地에서 最後의抵抗을 試하려던敵에對하여 七日午後九時를 期하여 我軍은 最後의 猛攻擊을開始하여 때마침 내리는豪雨를무릅쓰고 훌스텐河 西河敵正面으로부터 約十키로에 達하는蘇蒙軍에對한 掃蕩戰이 敢行되엇다 이戰鬪는 八日午前四時까지 七時間에亘하여 쉬일사이도업시 大肉迫戰이되엇다 번개의 電光은 砲彈의 炸裂과 戰車가 炎燒하는 火焰과서로 交錯하여소름이 끼칠程度이고 砲兵陣地로부터 울리는 殷殷한砲聲은 雷鳴과함께 山이울리 慘憺을極하엿다 酒井、山縣、玉田、吉見、木村 各精銳部隊는 肉迫攻擊의 態度를 取하고 훌스텐河南岸을 猛進擊한 岡本部隊와 呼應하여 훌스텐河를 끼고 倂進하여 발사갈、노로 兩高地의 敵最後의 據點을 奪取 猛烈한 緊迫戰으로 드디어 敵을 할하河渡河點 二키로 地點까지 驅退시켯다 이戰鬪로 敵은 潰滅的 損害를 입어 敵遺棄死體는 累累히 자못 敵 戰車裝甲車等 數十輛의 殘骸는 到處에 擱坐하고잇다 八日午前五時頃 敵은 발사갈高地와 橋頭陣地의 三角地帶인 훌스텐河와 노로高地의 一角에서 겨우 余喘을 保持하고잇다 할하河對岸의 敵砲兵陣地로부터의 掩護砲擊으로 겨우 抵抗을 企圖하고잇는데 훌스텐河北 兩岸에 沿하여 進出하는 勇敢無比한 我部隊의 猛攻은 一時도 쉬지안코 刻刻으로 包圍圈을 縮少壓迫하는同時에 그的確한 砲擊은 할하河渡河點에集中되어 敵의退路를制扼하고 我地上部隊와서로 呼應하여 大擧 敵陣地의 總攻擊을 敢行하는等 空陸一體最後的 掃蕩戰이 展開되어 八日午前八時 敵도 一齊히 退却을 開始、我軍은 이를追擊하여 猛烈한 追擊戰을 하면서 할하河合流點의 渡河點까지 一擧에進出하여 蘇蒙軍의 完全掃蕩은 今明間으로 迫到하엿다

敵總崩壞續續投降

【할하河畔八日發同盟】발사갈及 노로兩高地의 敵最後陣地를 奪取한 我軍은 各處에서 敗敵을 掃蕩中인데 白旗를들고 投降하는者로 續出하고잇다

【할하河畔에서八日發同盟】我進擊部隊는 八日拂曉부터 敵最後陣地인 合流點附近攻擊을開始、午後에이르러 完全히이를 奪取하엿다 總崩壞되어 할하河로向하여 潰走하는敵을 다시猛進中으로 蘇聯人을 捕虜도하고 目下判明된것만도 六十餘名에 達하는바 繼續後方○○으로 輸送되고잇다

【할하河畔에서八日發同盟】我軍의 急迫으로 할하河로 沿하여 敗走하는 外蒙蘇聯軍은 我砲爆擊으로 架橋가 破損된 때문에 河畔各處에서 殺到 大混亂에빠저 我軍의 銃爆擊으로 大打擊을바더 할하河는 多數敗敵의 死體가떠잇다

聯合委員會出席次 北支側一行靑島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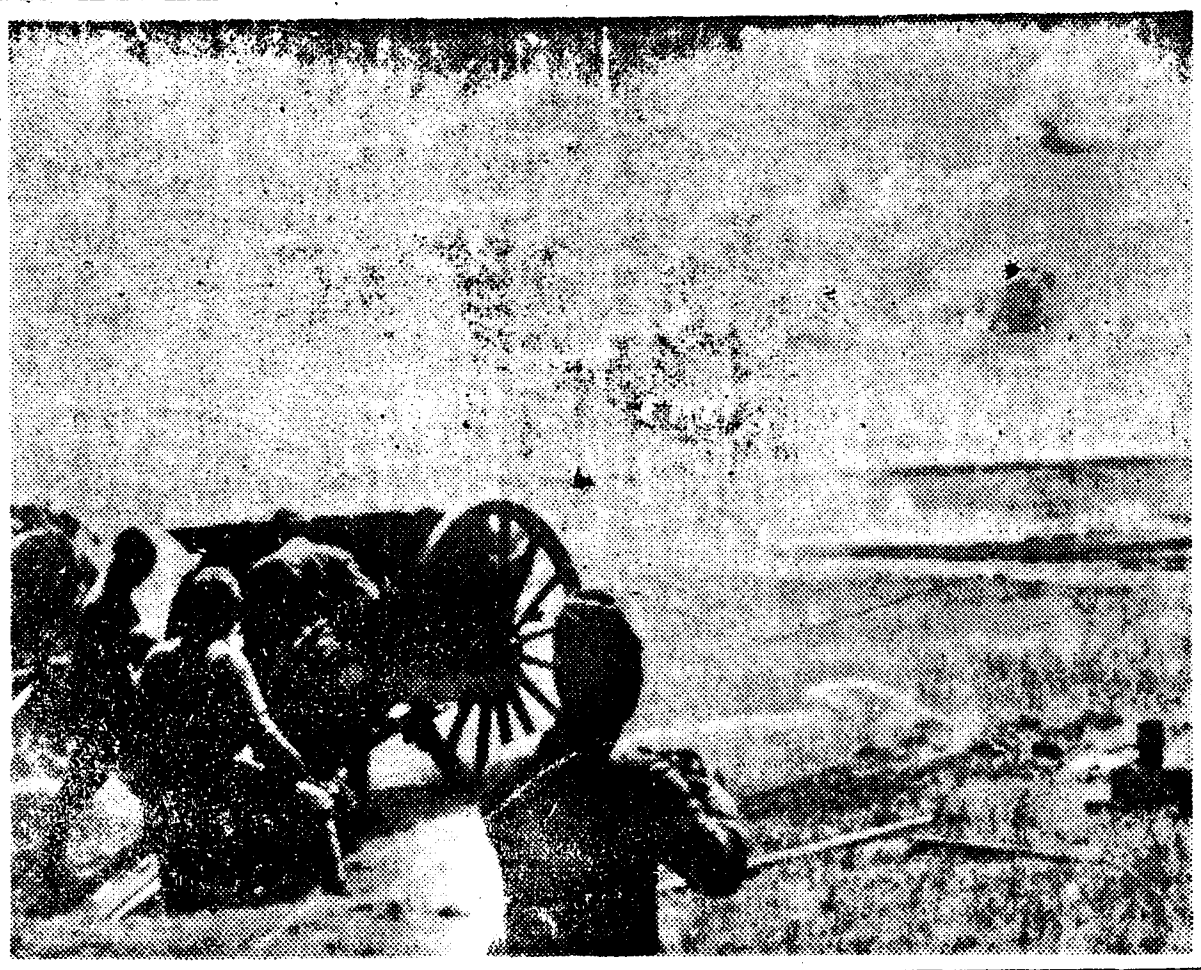
【北京八日發同盟】第五次聯合委員會에 出席하는 臨時政府側委員과 喜多興亞院連絡部長官其他一行은 八日朝飛行機로 一路靑島로 向하엿다

維新政府首腦靑島에

【上海八日發同盟】오는十日부터 靑島에서 開催될 第五回臨時、維新兩政府聯合委員會에 出席하려고 維新政府行政院長梁鴻志、立法院長溫宗堯、內政部長陳群等諸氏는 八日上海出帆의 大連丸으로 靑島로向하엿다

天皇、皇后兩陛下 葉山御用邸에行幸啓

【東京電話同盟】天皇皇后兩陛下께옵서는 滿宮殿下를御同伴하옵시고 오는 十一日午後一時五十五分 宮城御出門 同二時五分 東京驛御發車 宮廷列車로 同三時五分 逗子驛御着 葉山御用邸에 行幸啓하옵실줄 八日 盼附가 계옵서엇다 長期戰下에 玉體의 御安泰를 伏祝하는마음으로 內閣과 大本營으로부터 行幸을 奏請한데對하사 今番 이行幸을 御聽許하옵신것으로 拜承되는바 時局을 御軫念하옵시고 또將兵의 身上에 기프신 大御心을 내리옵시는 陛下께옵서는 御政務의 御形便에따라서는 隨時還幸하옵실御豫定이시라고 承聞된다



★……훌스텐河畔에서 敵을 猛射하는 我砲兵隊……★

中南支要衝猛爆

【上海八日發同盟】艦隊報道部七月八日午後四時發表=지난六日海軍航空部隊는 重慶大爆擊을 實施한外에 中南支方面에서도 다음과가튼 活躍을하엿다

一、中支方面에서 鎭海、紹興及 余姚의 軍事施設敵據點陣地를 攻擊하여 여에多大한 損害를 주엇다

二、南支方面에서 福州附近天河島의 敵陣地及 附近銀場門砲臺를 비롯하여 韶關의 兵營倉庫와 曲江(廣東省東部)北方陣地를 爆擊한外에 延平附近에서 軍用汽艇十隻을 銃爆擊하엿다

滿洲國軍勇戰 全軍이絕讚

【新京八日發同盟】今次노몬한附近의 戰鬪에서 滿洲國軍은 終始日滿共同防衛의 熱意에불타서 日本軍에 協力하고 今次의大勝에 큰貢獻을하엿다 即國境의風雲이 急迫을告하자 行動을일으킨 滿洲國軍은 七月二日頃부터 强力한 日本軍의 支援下에 발사갈、노로高地一帶의 敵陣地에 肉薄, 호론바일草原地帶의 惡天候에 給水難을 克服하면서 勇敢히 行動하여 滿洲國人期待에 어긋남이업섯다 特히 國軍衆將部隊의 勇戰은 가장 刮目할만하여 지난二日夜半 沛然한 豪雨에 落雷가 頻頻한中에 展開된 將軍廟前面激戰에서는 勇敢히 善戰 敵軍을 壓迫 一兵에이르기까지 牢固한 信念下에 戰果를 擴大하고잇다

標準系價를決定

最高賣渡=千三百圓 最低買入=六百卅圓

【東京電話同盟】戰時糸增産計畫實現과 輸出振興에 資할 生絲賣渡標準價格改訂을 審議할 第四回絲價安定委員會는 八日午後二時二十分農相官邸에서 開會 櫻內會長의 人事가잇난後 吉田蠶絲局長으로부터 諮問事項인新標準價格算定의 基礎數字와 밋 最近蠶絲事情에 關하여 詳細히 說明하고 審議한 結果 다음과 가치 政府原案대로 方針을 可決하고 同三時五分散會하엿다

農林省發表

一、賣渡標準價格(最高價格)一千三百圓(現行比較三百圓引上)

一、買入標準價格(最低價格)六百三十圓(現行比較五十圓引上)

一、生絲補充買入價格一千四十圓以下

政府는 昭和十四年生絲年度中에 依하여서 絲價安定施設法第三十條의 規程에 基하여 生絲市價가 賣渡價格의 八割에 該當하는 價格以下로 떠러질境遇에는 그必要를 認定하는 數量만큼 生絲를 買入하기로되엇다

又復廿五機擊墜

보일湖上空의大空中戰

【○○基地에서八日發同盟】松村部隊原田大尉가 指揮하는 ○○機는 八日午後一時四十分보일湖附近上空에서 敵戰鬪機約五十機와 遭遇 敢然히 突込亂戰에 亂飛하는 湖上에 壯烈無比한 空中戰을 演出한後 I十五型十機 I十六型九機를 確實히 擊墜、不確實六機、合計二十五機를 擊墜하고 全機無事歸還하엿다

壯絕快絕한空中戰

발사갈攻擊觀戰記

【○○七日發同盟】三日早曉를 期하여 開始된 발사갈 總攻擊은 敵陣이라는 一觸에끄첫다 記者는 三日早朝 ○○基地○○을出發午前九時지나 前進部隊에追及하여 좀노픈언덕 뒤에숨어서前面에展開된 豪快無比한 [illegible]를구가잇섯다 나직하게起伏하는 [illegible] 我軍年部隊는 炸裂하는敵彈을무릅쓰고 猛前進中이다 前面一帶의 高地에서 砲彈이落下되어 砲擊을 퍼붓고잇다 敵陣地後方인듯한곳에서는 我軍의爆擊砲擊으로부터인지 타고잇는듯하여 黑煙은濛濛히 衝天되고잇다 我荒鷲部隊가 爆擊을 마치고 後方으로 引退하여가는것이 보힌다 正午頃記者는 眼前에 約二百米高度로날르는 戰鬪機編隊가 다낫다 勿論友軍機라고생각하고 一機二機헤여보즉 十二機가잇다고 생각한瞬間 同編隊가 一齊히急降下하여 地上掃射를 始作하엿다 仔細히보즉 I十五型戰鬪機다 記者는놀라서 同僚에게 敵機襲來를알리고 地上에飛來한敵機는 一齊히地上掃射를마치자 即時我陣地를向하여 날러가버렷다 오직한機가 記者等一行의 頭上의 안테나를 느리고잇는 方向으로날러오는듯하더니 黑煙의 꼬리를 남기고 約一千米저便에 墜落하여 불을뿜고타고잇섯다 午後가되자敵機는 相當히 活躍하여爆擊하러오는것을 我荒鷲에게 發見되어 記者의머리우에서 猛烈한空中戰을演하고 或은 敵機가 空中分解되고 或은 黑煙의꼬리를 끌고墜落하엿다 午後四時지나敵의砲火가좀멈추자 我歐牛部隊도 敵에接近한模樣으로 콩을 볶는듯한機銃소리가 여기저기로부터 들여왓다 午後九時라고 하는데 아직도밝다 이름모를가지가지草花가 꼿밧과가치 흐터저도톡피어잇는 호론베일 大草原에는夕闇이 漸次로 가까워오고잇는데 「싸움도못나고 날도저물어」라는 軍歌를 聯想케할만큼 戰場에는 밤의幕이 고요히 내려진다 漢書와가치 저便에서울리는 砲聲을 들으면서 記者는 밤이슬에저즌 풀우에 드러누엇다 조곰잇스즉 彼我의 砲兵陣地로부터 壯烈한 砲擊戰이 展開되엇다 敵은 我方의 ○砲陣地를 探求하여 砲擊하고 잇는곳하다 우리가잇는 後方約百米되는 地帶에 敵의 砲彈이떠러저러진다 我方의 砲彈도 우리들의 머리우를 넘어서 소리를치고날른다 東亞하늘에 뿜어젓다고생각하니 陰曆十八日밤의달이 크고동근姿態를 나타내어풀에이슬이 곱게빗나고잇다 어제밤부터 一睡도못하엿다가 나제炎暑에 疲勞를느끼우리들은 砲彈의소리를들으면서 곱박곱박졸앗다 二時間이나 잘잣슬까 한때 또 우리가잇던 곳 近傍綠線의 저便에서 무서운 銃소리가 들여온다 暫間가만히누은채로 보고잇스즉 敵彈이 盛히머리우를 날러 바로 後方에 떠러진 照明彈이 赤、靑의 불을 [illegible] 날러왓다 「夜襲이다 夜襲이다」라고 砲彈이 내리는 속을 後方○○部隊本部를 指目하고 一直線으로달엿다 다른면에 「인제는할수업다」 라고 여러번생각하면서 달렷다 直前後線의 上空으로부터 敵의 砲彈의 소리와함께 炸裂하는데 恰似히集中것다 危險하지만안는다면 별의砲擊은 實로 아름답다 한동안 漆黑하던 敵의 砲擊도 멋자우리들은 나제 疲困으로 기픈잠에 빠지고말엇다

英兵、山海關서 佛伊兵과衝突

【天津七日發同盟】天津에서의英兵及 英人의暴行 非紳士的行動은 一一히헤아릴수업는데 支那人은 勿論이고 第三國人까지暴行하고잇는바 지난一日 山海關에서 英兵의 支那人에對한暴行事件에 發端하여 그것이 伊佛兩國兵과의 衝突에까지 進展된事件이잇다 지난一日 正午頃山海關郊外를 通行中인 支那人 張振에게 英兵三名이 길을무르려스나 말을몰르라 謝罪하고잇스즉그 英兵은 突然同人을 毆打負傷케하엿던바 그곳을지나가던 伊太利兵二名이 그것을보즉 伊太利兵營에使用하고잇는 小使이므로 英兵에對하여 그不法을 詰問하는同時에 張振을 奪還하엿다 그러데 英兵은 밤이되기를 기다려 約二十名이 不法하게도 張振의 自宅을 襲擊하엿는데 英兵이襲來한집은張의 집이아니고 잘못알고엇선인 鄭春卿이란는者의 집이엇다 可憐하게도 同家는 英兵에依하여 完全히 破壞되엇슬뿐만아니라 主人은 不幸하게도 重傷하여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좋을보아 平常時에 出入하고잇던 佛國兵營에 다라나 何것을 報告하엿다 이들들은 佛國水兵은 自己들의 出入商人을 理由도업시 襲擊하여 집을破壞하고 負傷시킨것은 怪惡한 일이라고 英兵側에 嚴重抗議를하엿다 여에놀란 英兵側에서는 自己의過失로 問題를 惹起하엿스므로陳謝한後 慰藉料와 損害를 辨償하여 結末을 지엇는데 對伊太利問題는 아직 解決치못하고山海關에서는 어로라미엇어 英國兵은 수여 머리를 들지못하는 狀態이다

陸軍首腦對策決定

外省과協議後最後的調整

日英會談

【東京電話同盟】日英東京會談에對한陸軍首腦部會議는 八日午前中會議에서 現地側方針을 基礎로 愼重協議를한結果 大體로 成案을어덧스므로 午後에다시武藤少將以下現地側代表를 加하여 細目的部分에 亘하여 檢討하고 重要協議를 하엿다 同日中으로 最後的決定을 보게되면 即時이를 外務省側에 送附 外務省側은 午後九時부터 加瀨公使以下現地側을加하여 關係局課長會議를開催 外務省側方針에 對하여 協議할 豫定인바 陸軍外務連絡協議會는 九日中으로 十日에 開催하고 會談에 臨할 我方態度에 對하여 最後的調整을 하기로되엇다

租界內의不逞不子 英當局과結託蠢動

【天津八日發同盟】英佛租界內에 潛居하고잇는 抗日共産分子와그 巨頭라고 指目되는 六名은 先月十四日 租界隔絶實施와同時에 租界內에 殘留하여도 到底히活潑한 活動을할수업는것 도身邊에 危險을 느끼고 同十七日夜 英國軍艦으로 靑島와 上海方面으로 逃避하엿는바 아직도 租界內에는 多數의 共産分子가存在하고잇서 彼等은 巧妙하게外部와 密接한連絡을取하여 京津地方의 發電廠 水道廠及 電話廠等 各重要建築物 破壞及後方攪亂等을 企圖하고잇다 右連絡方法은 我方의 檢問檢索은 좃지못할만큼 嚴重하여 通常手段으로서는 不可能하므로

一、連絡員이 英國軍艦을 利用하여脫出

二、英國租界內로부터의 無電連絡

三、暗外를 利하여 警戒線突破

等의 方法을 取하고잇다 六日밤과가든때도 連絡員인듯한 支那人二名이 租界包圍의 電流綠때문에 即死한 事實이잇섯는데 彼等 一時는 英國租界當局과 密接한 連繫를 하여 新現行動에 나오고 잇는것이 明瞭하여 그目的은 東京會談으로 하여금 英國側에 有利하게 展開시키려는것과 後方攪亂으로 我方의 租界隔絶의 緩和를꾀하려고하는때엇다

米、十二萬勞働者 一齊總罷業開始

新事業促進法에抗議

【紐育七日發同盟】事業促進局關係로 雇傭되어잇는 勞働者約十二萬은 最近公布된 新事業促進法에抗議하여 産業別勞働者會議米國勞働同盟指導下에 七日一齊히罷業을開始하엿다 舊法의一時間의勞働賃銀을二弗乃至四弗로하고 勞働時間에는 何等制限이設定되지안흐엇는데 新法은熟練工 非熟練工의 區別이업고一律로七十仙式 引下하고 또一個月勞働時間數를 最高百三十時間으로 限定하여잇다 最近米國勞働者間에 뉴딜政策에對한 失望이 노파가고잇는때 이므로 今次罷業은 各方面으로부터 注視되어잇다

貴院伯子男議員 十日에一齊選擧

【東京電話同盟】貴族院에서의伯子男爵議員總選擧는드디어 十日午前華族會館에서 一齊히擧行하고 同日即時開票하여伯爵(定員十八名)再選十五名、新選三名、子爵(定員六十六名)再選五十四名、新選十二名의 當選者를 決定할터이다 그리고 右開票終了後 選擧管理人인 兒玉秀雄伯 靑木信光子 松井敬四郎男三氏는 그結果를上奏 御裁可를 仰한後 松平議長에게 當選者의 氏名을 報告하여 正式決定이될 順序이다 그런데今秋九月十日의 多額議員과 同二十日의學士院 議員의 選擧를 기다리는데 七年에한번식잇는 貴族院의 總改選이 全部終了 하기로되엇다

佛工部局不法에 漢口我當局問題를重視

【漢口七日發同盟】七、七記念日當日武漢을中心으로한占領地區內 靑年層으로 組織된 華中靑年協會에서는 漢口佛國租界에 在住하는 中國人에 對하여 中國建設에 協力을呼訴하려고 會員數名이前夜佛國租界內 大東飯店에 宿泊하고 七日午前八時半 代表者가 租界工部局을訪問하여 日支國旗及 宣傳삐라의配布에對하여 折衝하엿던바 意外에도 佛國租界工部局은 右折衝中武裝한 安南人警官約四十名을시켜 同飯店을 包圍케하고 남어잇던 靑年協會會員의檢問을 行하여 日支國旗約五百枚 宣傳삐라約四千枚를 押收한後 會員中一人을 檢束함에이르럿다 華中靑年協會에서는 中國靑年과中國民衆에對한 安全한民衆運動에對하여 不法干涉하는것이라하여 佛國租界當局을向하여 嚴重抗議를하는一方 我現地當局에서도 日支兩國旗를 沒收한것과거듭은 國旗를侮辱하는것이라하여 問題를重視하고工部局側態度如何로는斷乎한處置에나갈模樣이다

政友中島派 水野氏에入黨懇請

【東京電話同盟】政友會中島派所屬東北北海道選出代議士有志는八日午後六時부터 芝虎門曉翠軒에參集 黨勢擴張件에 對하여 協議한 結果、先日 政界長老인水野鍊太郎氏를 마저드리기로 決定 十日代表를 派遣水野氏를訪問懇請키로하고 同九時散會하엿다

佛租界當局에 武漢市政府抗議

興亞記念日行事妨害事件

【漢口八日發同盟】興亞記念日의 漢口佛國租界에서의 興亞靑年協會 宣傳隊員檢束 日華兩國旗沒收事件에對한 日華兩當局의 强硬態度에 唐惑한 佛國租界工部局은 七日深更 檢束中의 宣傳隊員 楊鐸을 秘密히釋放하엿는데 武漢市特別市政府는 楊鐸은 興亞記念日大會役員의 公職에잇스므로 이를檢束함 釋放에對하여는 當然히 市政府에對하여公式報告를 하여야되고 또問題는楊鐸의 釋放으로解決된것이 아니라하여 八日午後市政府涉外科長 李紹漢氏는工部局을訪問하고

一、宣傳隊員의不法檢束

一、日華兩國旗의沒收

의 二點에對하여 工部局側의正式聲明陳謝를 要求하엿다 市政府側에서는 租界當局의 態度如何에 따라서는 租界隔絶도 不得已할일이라고한다

平沼首相 武州金澤에旅行

【東京電話同盟】平沼首相은 週末休養次八日午後十一時十五分官邸를 出發 武州金澤으로가서東屋旅館에 投宿二泊後十日午前歸京할 豫定이다

人事·集會

◀金弘贊氏(瑞川商工會理事)◀鄭金重根氏(咸南道會議員)◀鄭瑞奎氏(甲山面長)◀鄭泰欽氏(甲山阿片組合長) 八日朝入京 半島호텔에 投宿 十日退京豫定

◀服部伊勢松氏(平北警察部長)八日午後三時京城驛發列車로 北京을 經由 上海、南京方面에出張

無病長生

病으로煩憫하는분께 推奬하고시픈 養生法

이런容體에……
肩臂痛、耳鳴、頭痛
不眠症으로辛苦하며
悸와숨이차며(心悸亢進) 血壓이
놉고手足이아프고저리며(神經痛)
元氣업고 便秘로氣分이沈鬱한데

濃厚한 食物만이하고 肉、白米、砂糖等의 酸性食物을 過食하며 便秘나 黴毒 結核이잇스면 血液은 酸性으로 하야 中毒症狀을 이르키는것인데 그우에 過勞나 心身이 잇서서 밤에 安眠을 할수업더지하면 全身에 毒素가 發生하여 頭痛、耳鳴、肩臂痛、動悸와숨차는等의 原因이 됩니다 또 動脈이 硬化하여 血壓이 노파서 中風半身不隨로 嚴憫하게되며 手足이무겁고아프고저리고 神經痛이 도가버워집니다.

[illegible] 特殊養生藥 わう錠에―(삐ー도생겻슴니다)를 [illegible]

和黃錠에의뛰여난効驗

이藥은 多量을服用할必要가업고 一日一回服藥으로처음에는一、二錠으로부터 始作하여 漸次增量하여 三、四錠으로하는것이 適當합니다.

經過良好

北海道 松本竹藏氏

合掌 昨年부터 和黃錠의 愛藥하심을바더 小生도 服用하고 知人에게도 服用을 勸하엿습니다 一般에게서 感謝하여 [illegible]

氣分爽快케

(福岡縣 中川源吾氏)

一家全部가

沼津市 田中秀傳氏

便通조코血壓내려

(福岡市 池田慶一氏)

手足이아프며(神經痛)肩臂痛

(佐賀縣 松尾松市氏)

無代進呈

無病長生法 養生法 新食餌療法

排毒 淨血 便通 特殊養生藥

和黃錠

에ー(便秘症인분)

便秘하지안는분께는和黃錠ー삐ー가생겻슴니다

胎毒、黴毒、結核毒 血液이나뿌게된분 便秘하지안는분은和黃錠삐ー

藥價極히低廉

에ー나삐ー도藥價는갓다

一月分 一圓八十錢
二月分 三圓二十錢
送料 內地十錢 海外三十錢

註文은에ー(便秘하는분) 삐ー(便秘안는분)指定하십시오 代金引換으로도直接註文하십니다

東京市四谷傳馬町一の卅三ノ卅四
特殊榮養研究所
電四谷(35)四一五六番
振替東京四七八三四番

第一劇場

今週映畫と漫談 七月八日ヨリ
各社ニュース
三映封切 佛SIOプロ超傑作
イレース・ド・シレイ主演
●胡椒娘●(パプリカ)
生粋の佛蘭西喜劇の秀逸篇
漫談 對話 上演
全務キネマオールトーキ
獨腰の秘密
東亞直營 第一劇場

新富座

◇松竹大船超特作品
「純情夫人」
監督 佐佐木啓祐
主演 上原謙 桑野通子 夏川大二郎 川崎弘子
◇各社ニュース
七月八日ヨリ九日迄二日間
毎日晝夜二回 一時 六時卅分始映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ブラウンの爆笑大勝利」
男の心の奥の奥、女の心の奥の奥、これぞ全女性が知りたかつた秘密
ワーナー社特作品
◇東寶映畫社作品
「虹立つ丘」
監督 大谷俊夫
主演 岸井明 高峰秀子
七月七日八日支事變第二週年記念日ニ付キ謹ンデ休館仕候也
電本五六七七

松竹キネマ

五日より特別封切
◇松竹大船超大作
井上金太郎 監督
新女性問答 前後篇
桑野通子 夏川大二郎 川崎弘子 德大寺伸 三宅邦子 廣瀨徹 水戸光子 奈良眞養 森川まさみ 岩田祐吉
◇松竹京都大作
若旦那ここに在り
主演 藤井貢 逢初夢子
各社ニュース

東洋劇場

電③2154 3640(現場直通)
七月八日ヨリ二日間
毎日晝夜二回 一時 七時卅分始映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各社ニュース 太平マネ社特別提供品◇
「魔獸境突破」
ベンジャミンバプリツク氏製作
本篇を見ずしてジャングル映畫を語るべからず
◇松竹京都特作
「春風伊勢物語」
監督 二川文太郎
主演 本郷秀雄 花井蘭子
◇コロムビア映畫社特作
「復讐の慘劇」
監督 ルイズキング
主演 バツクジョンズ ルピタトワズ
次週=ブラウンの爆笑大勝利 「虹立つ丘」 情夫人
七月七日八支那事變第二週年記念日ニ當リ謹ミテ休館致シマス

桃花劇場

情熱에大地 四幕七場
林仙圭作
大合同 公演
電龍一三三三

00532

今年의滿洲移民 벌써一萬戶를突破
秋期移植, 今年만은中止

금년도에 살기위하여 왕도낙토(王道樂土)를차저서 멀리 만주국으로떠나간 개척이민은 집합이민 집단이민 분산이민 즉 자유이민등을합하여칠월현재로 전부일만오백사십호를 돌파하엿다

이중에 총독부에서 직접간접으로 알선하는 집단이민과 집합이민이 사천구백호이고 만주국에 연고자가잇서서 만주국정부의 승인을어더가지고간 분산이민이 칠백사십호이다 그런데 분산이민으로서 제일 만흔곳은 경상북도의 일천육백사십호이고 제일적은곳은 충청남도의 오십이호이다 이와가치 경상북도에자유이민이 가장만흔것은 작년에 흉작이 잇섯던 관계로 농촌의피폐자 만흔것이 중요한원인인듯하고 충남이 제일적은것은 원래 충남사람은 성격이 적극성이부족하기때문에 외국진출 후은 선개척을 질겨하지안는것이 그중요한 원인이든듯하다

하여간 금년만주이민은벌서일만호를 돌파하엿는데 만주국당국의허가 조건도잇고 하므로금년도의 만주이민은 이것으로써 끈을 막게 되엇다따라서 매년추기에실시 하던이민은 금년만은중지하기로 되엇다

구덱이湯飯파는집
昨年에도혼난大昌屋에서또!
더러운業主嚴罰方針

점심그릇에서 또구데기가 나왓다――팔일정오쯤되어 부내종로서에서 서린정(瑞麟町)사십일번지 대창옥(大昌屋)으로부터가저온 장반을 서원이 먹을려고보니 구데기가 들어잇슴으로소동이되어 보안게에서 곳경영자김복남(金福男)을 불러 점호사실조사를 시작하엿다 작년여름에도 점심그릇에 구데기를 너허가지고 오래동안 영업정지를 당한집으로 동서에서는 취조한결과 엄중한처치를 할터이라고하며 관내업자에게도 엄중한 경고를띠어 철경을여행하기로되엇다

구리도적二名

부내 신당정(新堂町)일백구십번지의 팔십오호 박명록(朴命錄)(二三)이는 경성(京城)공작소에 근무하고잇는것을기회로 가등정 이백팔십구번지의 십오호 양철공 김이철(金□□)(□□)동일오번지 접화상 최선필(崔先弼)(二三)여와 짜고 약두어달전부터 여러차례에걸처 어둠을타서 종로통정목에잇는 경전공작소에몰래드러가서는 그속에드어둔 구리쇠줄과 주석으로만든 기게동다수를 훔처다가 팔어먹은사실이 동대문서원에게 붓잡혀서 팔일새벽에 세사람이 모명경찰에 잡혓다

排英同志會結成
十二日午後, 府民館講堂에서
各界, 同憂之士에飛檄

우리나라가 그흥망을걸고 시작한 흥아대업(興亞大業)을 방해하며 은근히 흉한칼을빼처 장개석을돕고잇는 흉칙한 영국을 배격하여 새로운동아천지에서 내여쫓고자 조선춘추회(朝鮮春秋會)소속으로 서울에잇는 여서신문사 주최의 저번배영국민대회는 마침내그결과 이 조선 방방곡곡에 퍼지기에이르럿다 그리하여 조선의배영열은 천진(天津)의 현지를비롯하여북지(北支)몽강(蒙疆)중지(中支)만몽(滿蒙)에이엇는터이다 이같이오르는 배영열은 이제아주 영국을 응징하여 그화근을 뽑지아니하면 후회가 백년후에까지 미칠것이라하여 지난번 배영국민대회 뒤끝에 각방면으로부터 이러한동지들은 한께 뭉치자는소리가 노팟스므로 드디어 배영동지회가 생겨나게되엇다 어것은 서울 여서신문사 사장이 창립준비로 여러번의논한 결과 국민대회때실행위원을 그대로창립준비 위원으로 삼아그구체안을 세우던중이엇는데 마침내 성전 두돌마지인 칠월칠일의의논이 꼿난것이다 그리하여 이결정석은 오는십이일 오후일곱시반부터 시내부민관 큰강당에서 거행하고 회장, 부회장, 어사장 이하역원을 뽑아서 진용을 바로잡고목적을향하여 닭려나가기로되엇다 이와아울러기념강연회를 열고영국이 뒤집어쓰고잇는 탈바가지를 벗겨버릴작정인데 단계로나 개인으로나 나라를 근심하는이는 누구던지 참가할수잇는 터인즉 참가할이는 경성일보사에잇는 배영동지회 임시사무소로 알려주기를바란다고한다

趣旨書

世紀의 大偉業인聖戰은 이제 二周年을마지 銳意勇進한 皇軍將兵는 海、陸、空으로 勇猛果敢 赫赫한戰果를獲得 그武威는 …… 開始되는 日英會談에 幸히初期의主張과 目的을貫徹하면 조커니와 그前途에幾多 難關障碍가잇서서 決裂危機를 多分히품어잇다 卽吾輩은 厥하야利키를願치안코 차라리決裂하여 싸우려는것이다

이러하야 支那事變前途는 어둡고 複雜多難한相貌를 露呈하여 亞細亞의間 形影서로 關聯하고 一小局地의事端도 늘全局을 흔들어 이제야말로 全世界를드려서 大變革의機運을 품은激動의 渦中에잇다 此秋에當하여吾等同憂志士는 抗日支那를 支援하는 第三國의罪悖에對하여 斷乎鐵槌를加할 決意를맑히고 먼저當面의 援蔣勢國인 英國으로하여금 反省自肅케하려는 事에 나서려는것이다

悠久二千六百年 祖國日本의相을 回顧할때 眞餘의生靈과 巨億의寶를 犧牲으로하고 大亞細亞의 天地에遂行되고잇는 聖戰이야말로 八紘一宇 天業을恢弘하는 皇國躍進의巨步로서 今後에 億兆國民的義務는 更히一段의 鞏固한決意가잇슬수업다

卽 玆에不退轉의 決意를 새롭게하고저 同憂志士에 檄하여 『排英同志會』를結成 興亞大業達成上 妨害가되는 英國의奸猾한行動을 排斥하려는것이다 바라건대 吾輩파뜻을 가치하는諸氏여 오라 蹶起하여 東亞攪亂者 英國에一大鐵槌를 내리라

記念日에獻金遝至

칠월칠일까지 사변이주년동안에전조선 방방곡곡으로부터 조선군애국부에 들어온 애국헌금은 한개 오백칠십팔만칠천팔백사십칠원칠십오전이 나되는 거액에달하엿다

그런고 칠월사변기념일하루동안에 들어온것만으로도육만육천구백원이십삼전이나 되어서 애국부원이래 처음보는거액이라한다 그래서 조선군애국부당국에서는 매우감격하여 이를 바다가지고 군부에헌납수속을밟엇다

◇…경성본정 『데라이』 상점주인 향월오랑(香月五郎)씨는 사변기념일에 본정서를차자와 어백원을 국방헌금하엿는데 금후매년 칠월칠일마다 이백원씩헌금하겟다고 말하엿다

◇…동경 정유사(精乳舍)주인 정상엄이(井上嚴二)씨는 팔일아침 본정서에 차자와 사변기념일에 어십팔전주만일이라고 일백오십원을 국방헌금하엿다

本町署接受分

지나사변 이주년기념일인 칠월칠일본정서에들어온 국방헌금 두가지◆본정(本町)이정목 『미요시』 상회주인향월오랑(香月五郎)은 헌금이백원을가지고와서 아프로 자기가세상을떠날때까지 매년이백원식헌금을게속하겟다고 말하엿다 ◆본정통에잇는 정유사(精乳舍)주인정상엄이(井上嚴二)는칠일의 특매품(特賣品)이십팔전짜리치의 순이익금일백오십원을헌금하엿다

師團恤兵部接受分

칠월칠일의 지나사변 이주년기념일을 중심으로 제이십사단휼병부(恤兵部)에는 임의금품이 각처로부터 만히들어왓는데 부내장사정(長沙町)관수정(觀水町)종로자경단 각구방부인 분회에서는가족의 밥을지을때에 한사람아패 짤한수까락식 떠서모아서합계 열여섯말을 팔아그대금 오십칠원 삼십오전을 육군합동묘비(合同墓碑)건설 자금으로헌납하엿다

十五年間開墾하니 他人이所有權主張
平澤郡堂巨里干潟地緣故住民百餘名
道에第四次陳情書를提出

평택군오성면당거리(平澤郡梧城面堂巨里)에잇는 간사지 연고자 박보규(朴寶圭)등 일백육십여명은 십오년동안이나 땀을흘려 제방을축조하고 경작하여오던 간사지일백삼십정보를 어지음 떼어게될 위기에 어르렀다하여 팔일총독부와 경기도청에 네재번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당국의선처를 바랏는데 진정서에의하면 이간사지의 유래는 다음파갓다

당거리 간사지 칠백삼십사정보는 대정십삼년 십일월일일로도 연고자 김교명(金敎洙)등 칠백십오명의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나온것으로그후 칠백십오명은 개척조합을 조직하엿섯는데 금번 지정서를 제출한 일백육십이명조합원은 창립총회당시 개약에 의하여 노력을들여 십오년동안이나 제방을 축조하여 논일백삼십정보를 맨들어 어것을 게약대로 자기소유로알고 경작하여왓섯다 그런데 간부들은 적기간사지를 맘대로처리하려고 소화구년사월 경성부수표정(水標町)삼십칠번지 길본혜칠랑(吉本惠七郞)과 결탁하고 조합원에대하여 허가운동비가라 오만원과 공사비사십만원을 분담하던가 그러치안흐면 조합을 탈퇴하던가하라고하여 조합원들을 모두탈퇴시켯슴에 일백육십이명에게는 적기는 일백삼십정보를양도한다고 언명하엿스므로 어들은 조합을탈퇴하엿섯다 그런데 금년봄에 공사비로용동한 길본은 인부삼백여명을 보내어 이미 싸흔제방을 파괴하여 제방공사를 자기들이 한것가치 꾸며노핫스므로 세번이나 총독부와 경기도에진정하엿섯스나 아모소식이 업고 최근에이르러서는 길본은 소작게약을 하자는등 이들의 토지소유권을 무시하므로 십오년동안 피와땀으로 닥근일백삼십정보를 일치안케 해달라는것이다

咸興清津對抗蹴球 第一日
一對一로無勝負
今日에二回戰擧行

【咸興支社電話】함남시사와 함북시사의 공동주최의 제일회함흥대청진(咸興對清津)정기축구대항전(定期蹴球對抗戰)은 예정과가치 작팔일오후네시사십분부터 함흥공설운동장에서 팔천여 관중이 모히가운데 현영수(玄正株)주심 원형기(元衡基) 김용경(金鏞俔)선심의 삼씨 심판아래 함흥군선축으로 개시된바 전반전에잇서서 함흥군은 풍세(風勢)를리하여 공세에나온 청진군에게 수차압도되엇스나 조용해(趙鏞海)군의 묘방으로 양군소득이업시 마치고 후반전에 들어가 함흥군은 일분에 『레프트위잉』 김희수(金喜守)군의 패스를『레프트·인너』오정관(吳正寬)군이 『크린슛』하여 행선의일점을어더 열시는 함흥응원단으로하여금 열광케하더니 이십오분에는 청진군의 돌격이 잇서 『센터포―드』강영필(姜泳弼)군의『롱슛』로서 일점을 회복하여 일대일로 동점된후 양군특점에 지력하엿스나 끗끗내 독점치못한채 후반전을 마치어제일일은 무승부로 마치엇다 그리고 금구일 오후네시에는 제이회전을 거행하기로되엇다

◇寫眞은 東京在學生蹴球團一行

東京在學生蹴球團 鄕土訪問日程 發表
東京十三日出發·京城十七日到着

【東京支社發】東京在學生蹴球俱樂部員一行은 今夏에도 例年과가치 第六回鄕土訪問을 本社東京支社後援아래 計劃하고 着着準備에 奔忙中이던바 一行은十三日에 東京을出發하여 十八日에는 京城에서 全京城軍과 對戰하기로되어 前後六回戰을 한後 二十五日에 遠征을 解散하기로되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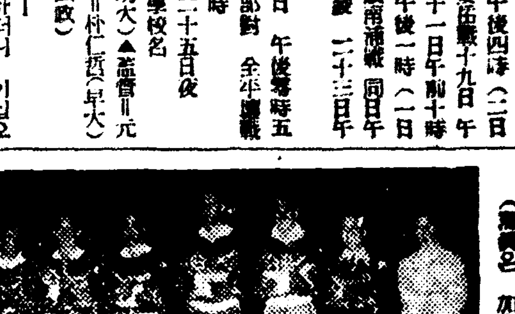
◇遠征코―스及日定表

◆東京出發 七月十三日 午後十一時
◆大邱着 十五日 午前九時三十六分(二日間)俱樂部對全大邱戰 十六日午後五時 大邱發 十六日 午前九時三十分
◆京城着 十七日 午後四時十五分(二日間)俱樂部對 全京城戰 十八日午後五時 京城發 十八日午前八時十五分
◆開城着 十九日 午前十時二分(一日間)俱樂部對全開城戰同日午後五時 開城發 二十日午前十時二分
◆安岳着 二十日午後四時(二日間)俱樂部對全安岳戰二十一日午後五時安岳發二十二日午前十時
◆載寧着 同日午後一時(一日間)俱樂部對全載寧戰 同日午後三時 載寧發 二十三日午前十一時
◆平壤着 二十三日 午後零時五分(二日間)俱樂部對 全平壤戰 二十四日午後四時
◆遠征解散 七月二十五日後

◇部員氏名及學校名

◆部長=朴性天(明大)◆監督=元容夏(日大)、書記=朴仁哲(早大)◆主將=安俊化(法政)◆選手=朴東振(中大)崔秉曠(早大)南昌濬(明大)尹鍾敏(農大)李仁雨(明大)崔永鎬(日體)金日龍(中大)金秉玹(中大)李在鎬(中大)金九煥(中大)金貞亮(明大)秋용鍾(中大)金永俊(日大)李在敏(明大)太學基(明大)金炳世(東京商工)文錫任(日體)徐正敎(日體)金根淑(日大)安熙鉤(拓大)金大均(明大)

對加奈陀籠球에 立教勝捷
卅一對廿七



(寫眞은 加奈陀籠球팀)

【東京支社特電】加奈陀籠球團對立教籠球戰은 八日午後七時四十分부터 神宮코―트에서 擧行한바 前半戰에는 十一對十一로 同點되엇스나 後半戰에 들어가 立敎調好를 보이어 結局三十一對二十七로 立教軍이快勝하엿다

立教 31 (20 11 / 16 11) 27 加奈陀

夜間部勝捷
東華部員對抗戰에

東洋拳鬪會에서는 部員들의技術을 向上시키는 意味에서 晝間部對夜間部와의 對抗戰을 擧行하기로되어 八日午後七時半부터 太平通朝鮮日報社大講堂에서 兩部十三名式이 出場한 가운데 夜間部가 九對四로 勝權하엿다 그리고前記對抗戰의 成績을 參考삼어來八月五日에 東京在學生選手들 마지할東京代表選手를 選拔하기로되엇다한다

全京城2 兼二浦0

大每主催의 第十三回全日本都市對抗野球大會朝鮮最終豫選第一日의 全京城對兼二浦日鐵戰은八日午後一時半부터 京城球場에서 兼二浦日鐵先攻으로 開始된바結局二A對零으로 全京城軍이 得勝하여 準決勝에들어가 大田鐵道軍과 對戰케되엇다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全京城	0	0	0	0	0	1	1	A		2
兼二浦	0	0	0	0	0	0	0	0	0	0

運動

◆力道=朝鮮重擧聯盟主催 第一回全朝鮮團體對抗重擧擧大會 午前十一時 京城運動場陸上競技場(觀覽無料)
◆庭球=京日主催 第十六回全朝鮮庭球選手權大會 午前九時 京城運動場코―트(觀覽料=一般三十錢、學生二十錢)
◆野球=大每主催 第十三回全日本都市對抗野球大會 朝鮮最終豫選第二日(準決勝)城津鐵道對全大邱 午後一時 大田鐵道對全京城 午後四時 京城球場(觀覽料=내른뒤五十錢、一般三十錢)

日曜講話

◇自福第一禮拜堂 午前十一時 世界敎化의職能 海老澤亮氏 / 午後八時 吾人의前途 林鍾國氏
◇體府町監理敎會 午前十一時 信仰生活의背水陣 金五峰氏 / 午後八時 하나님아버지 金五峰氏
◇仁川松峴敎會 午前十時 主內一致 金鍾變氏 / 午後八時半 十字架의道 韓基春氏
◇仁川大和町敎會(廣明學院內) 午前十時 福音信仰에 申新根氏 / 午後八時半 오직예수 林俊植氏
◇仁川金谷町敎會 午前十時 未定 鄭三先氏 / 午後八時半 神의愛 田英皓氏

딱총

◎ 하루 사람을 처더니 이러쿨린'가 러젓나!
◎ 경성, 전차에 치이사람을 자살하려던것이라고 누명씨워서 료명원에……
◎ 학생들의 술집, 찻집 출입을 금한다고
◎ 원래 착실한 학생들에겐 무섬잔흔 호령.
◎ 『이사조정령』발불부터실시, 이 법률이 심심하두록 서로 회목하게살일.

曆

◆七月九日(日曜) 陰五月二十三日◆干支 丁未◆日出 午前五時十九分◆日南中 午後零時三十六分◆日入 午後七時五十七分◆月出 午後十一時五十五分◆月入 午後零時十分 ◆滿潮(仁川)午前九時四十分 午後十時十五分

今日天氣 曇一時雨

三水에染病猖獗
하루밤에十三名發病

함남 삼수군신갈파(新乫坡)경찰서관내 삼수군강서면(三水郡江西面)에는 칠월하루밤사이에 장질부사 환자열세명이 발생하여 방금더 창궐할형세가 잇서서 일반은 크게 우려하고잇스며 경찰당국은 방역에지력하여 팔일총독부위생과로부터 예방주사액삼천오백개와 인부를 가저가 일대부민에게 예방주사를실시하기로되엇다

沐浴갓든어린애 屍體되어發見

시내 삼수정(三水町)이십팔번지 박계동(朴桂童)의 둘째아들 수만(洙萬)(十)은 칠일 한강가로 목욕을 나갓채도라오지를 안엇는데 팔일아침시체로되어 떠올랏다

過飮이禍根

시내 아현정(阿峴町)사백십륙번지의 삯일 노동자 김선호(金善鎬)(四二)는 칠일밤 친구의 집에가서 소주를 억병으로먹고 열두시쯤 집으로 돌아가서 잣는데 독한술을 원체만히 먹은때문에 새벽에 죽고말엇다

低俗레코-드 移入防止懇談
六社代表와道當局會見

경기도경찰부에서는 팔일오전아홉시반부터 고등과장실에서 경성시내에잇는 『코리도―콜』게축 『킹구』 레코드『콜럼비아』 『빅터』등 여섯축음기회사 대표이여섯명을 모아노코 간담회를열고 역자에게대하여 시국이 시국이니만치 총후국민의 건전한정서 생활에 악영향을 주기쉬운 조잡한 레코―드류를 이입하지말어주기를 엄중히 부탁하엿섯다

小林采男氏 戰車를獻納

◇…얼마동안 병기(兵器)의헌납이좀 줄어드는듯한 경향이엇지안핫더니 팔일 소림채남(小林采男)씨로부터 경기도를거처서 장갑전차(裝甲戰車)한대를 헌납하엿다 감자(甘蔗)경기도 지사

幸運의三六四名
市內電話抽籤開票結果

경성시내 지금선회 개통시청자의추첨은 어제 용산(龍山)분국관내것은 이미발표하엿거니와 그후계속하여 본국과 광화문국의 추첨을 오후다섯시까지에 마추워 추첨에들어간 오천사백이십팔명중에서 행운의 삼백육십사명이결정되엇다 당첨자에 대한전화가설은 되도록 속히착수하여 팔월그믐까지에 전부마칠작정이라한다 그리고 추첨에떠러진이들의 가납금(假納金)을 돌려주는것은 오는 십일부터 시작할터이며 번호불피하기위하여 일시히 전화국으로부터 문지자갈 날자를 지정한통지서를 때우기로되엇슴으로 이통지서를밧고서 차지러오기를 바란다고한다 본국과 광화문국의 당천자는 다음과갓다

本局

金聖福 洪永鉉 長井上正司 鄭海龍 李鄭圭 田淵直次郎 村上義一 朴毅昀 曹永實男 朝鮮皮革會社 國近利夫 아이데아 宇留社 徐吉泰 池田朝陽 李興福 宮本光隆 京城랩시―會社 早川하루 中川宗禮 朝鮮金商會社 東野虎雄 鄭卜成 井上直太郎 孫源紋七 鈴木寅吉 京城林道主介 內藤吉之助 崔顯鎬 吉谷平八 李得龍 堀內寬三郎 南李宅 李乾熙 鹽田大治郎 弘田稱一 竹內助五郎 角崎秀雄 市村要 朴景順 山野忠一 兪四郎 細川市助 孫滿寬 李永萬 大倉義郞 林翰順 西端稔 金鍾基 今林善右門 野坂正勝 金英淑 中島信一 中井彰 窪田藤 江副隆 孫金鸞 佐藤常太郎 增田國司 白南權 鷹野正二 吳斤李 谷川房實 成鶴仁 三宅正一 姜東秀 矢野留三郎 安部動馬 上條桂次郎 今村孝 藤井隆二郎 大橋平衛 植村壯吉 金顯秀 全義相 金東中 曾我根次郎 名越守三 西本爲之 原茂一 李炳善 尹在元 安藤勇 李在根 矢升齊 橫山長左衛門 李根祐 源信事業協會 松浦政次 朝鮮火藥銃砲會社 朴鼎壽 金鍾書 第一產業會社 東口近 富永平治 秦與商事會社 大戶金治 金炳奎 柳暉 徐相春 朴順成 桑本律藏 安倍根 四宮男 北郡憲太郎 西川敏太郎 飯本健二 昭陽鑛業所立事務所 坂崎藤雲 金相崎 崔晧知 鄭銀吉 孫寧萬 金源基 山崎사치에 梁萬相 柑谷仁三郎 安昌德 李鍾源 永島健次 是川銀藏 吳仁成 高橋晃昌 鄭泰義 宮本辰雄 孫完榮 朴昌成 金鎔福 土井滿一 興亞海道 具會植 京城電氣會社 羅泳緘 曲龍 具會植 申泰相 趙熙燮 中島貫一(補欠) 金玉用 信濃憲一 丸宮商事會社 朝鮮銀行 水沼五郎 柳寅權 青柳秀吉 西中米藏 白石一郎 酒呂邦亭

光化門

南順熙 柳昌鉉 韓基駿 稷隣 金顯龍 李鍾大 河在斗 沈彰燮 吳龍鐸 牧田秀苗 鄭煜 朱益淳 金景鎬 李達均 李炳哲 高永均 崔益柱 李昶允 永和產業會社 羅國臣 野副泰秀 李敏海 安鍾奭 朴春夏 張淳祥 馬熙春 金保榮 孟潤鎬 崔榮祚 金宅源 千永基 徐基俊 金彩仙 張令松 姜敬鉉 光明商事會社 金鍾人 閔桂鎬 崔基星 河京鎬 金在寅 文泰具 坂口도미 蔡雲錫 洪致云 李白永 鄭顯晃 韓允洙 李泳相 金福順 朴昌浩 安京鎬 王慶植 梁基元 尹寬奎 尹昇老 申浩均 洪聖陶 李晳鎬 金夏進 許泰根 李鐘泰 宋仁述 朴鳳實 後藤直光 金顯明 崔金煥 金彰培 朝鮮研武館 南基泌 閔丙宙 李丁榮 永西合資會社 金在鉉 金仁煥 玄伯仁 金仁愛 徐上龍 尹英求 崔俊伊 安與圭 金文鎬 韓明洙 金泰鎬 吳龍泳 崔明俊 李寅鎬 廉韶 成禹喆 李重泰 金道源 洪秉龍 李鳳儀 金一夕 孫鎭鈴 李庚鳳 朴勝煥 李佐範 朴之陽 藤井宙太郎 李推泰 趙胤洙 金斗憲 安炳賢 朝鮮起業會社 笠川酒 韓殷俊 崔載勳 李允九 峰田喜一郎 彭振 崔巽麟 金明鎬 李鍾騫 檜尾勝一 洪宣燮 小寺文雄 金正兆 李鍾勳 李炳善 金雲錫 金桂吉 申淑宣 金永鉉 橫山彌三 尹亨植 安孔善 崔顯淳 鄭煥哲 柳顯在 金承燮 金升鎬 朴順興 朴基成 全根成 金灝植 鄭居三三 李培淞 小柳기요 赤澤修一郎 申尙玩 李昌男 尹學天 李鍵浩 山根千代治 金熙普 盧元德 鄭下秀道 張東曄 鄭寬明 金成集 李喆永 金灝彙 李圭範 金在鉉 鄭霽泓 盧龍奎 林聖鎬 都萬福 金蓮善 城北町會 趙一鶴 金昌載 李明勳 趙震元 韓啓漢 (補缺) 金東薰 沈相元 堀江愛二 朴容虎 朴容九 石正鈞 陳錫五 孫諸亨 延圭直 郵便所職員協會

꼭파다루는裸體藝術의粹∥
裸體美人寫眞集
集譜大判卅二枚一組 八十錢 特價送料共 代金引替은二圓十錢 (註文略號ラタ)

江戶時代의風俗畫∥
浮世繪美人版畫集
右ラタ、ヒソニ組計送料共金一圓七十錢에割引、代引은二圓金一圓으로
東京市四谷區本村町廿九(振替東京一四六四六番)三昭堂

◎日文事變에依하야생긴慰問에一冊!
愛國流行歌集
●日本陸軍●大陸行進曲●軍國子守唄●愛國行進曲●日の丸行進曲●父よあなたは强かつた●愛馬進軍歌●其他六十餘集有合
四六版切手七枚보내면 直時歌集을보냅니다

夏節에는어재서食慾이줄어짐니까?

여름이되면 구미가업서지고 體力이減退되는것은 日氣가더운까닭에 여러가지器官의活動이 緩弛됨을따라淡泊한植物性食物(채소등)을 만히攝取하게되므로 動物性榮養分이不足하게되어 身體의抵抗力이弱해지는까닭입니다。

이러한症狀을그대로두면 夏瘦症(여름타는것)에걸리게되어 몸이漸漸더衰弱해지고甚하면 呼吸器가虛弱해저서 結核病에걸리기쉬웁고 胃腸粘膜이弱하게되어 傳染病에感染되기쉬웁습니다。

여름에는山이나바다로가서 皮膚를鍛鍊시키어 抵抗力을强化함도조흐나 一方으로榮養素를 特히都會地生活者에잇서서는優秀한强壯劑로써補給해야되겟습니다

世界的强壯劑ネオトン(NEOTONE)은 人體에必要한諸種榮養素를適量히包含하므로 이것을服用하면 呼吸器를强化하고消化機能을促進시키는等 身體의諸器官에活力을賦與하야 虛弱體의恢復을促進시키고病의侵入을防止합니다 。그뿐아니라 病人의病勢惡化를阻止하는作用이優秀하므로 病人에게는勿論이오 一般虛弱體의人士에게도 醫學界의諸先生이特히推奬하는터입니다。

(本劑의濫用에對하야는醫師諸賢께商議해주십지오)

効果 本位

適應症
呼吸器疾患•神經衰弱•貧血症•腺病質•食慾不振•産前産後•榮養障碍•病後恢復期

包裝 小瓶 中瓶 大瓶

世界的强壯劑 ネオトン 네오톤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奉天新京府•臺北•天津

(全國有名藥房販賣)

本報江陵支局電話開通 江陵 二一大番

白癜紫癜麻木 蟻行痲痛症 速治創新肌膚新發明 火傷가치부르트는症 手足麻痺其他癰瘻
문둥병 病癩
京城府龍頭町 東都製藥合資會社

キター マンドリン ウクレレ ハーモニカ
山口樂器店鍾路支店

두통이 곧 낫는
テリーン 데리―ㄴ
本舖 東京 中村信治商店 發賣元 京城 新井藥房

優秀한 胃腸救急藥으로써 賞讚을 博하는
十安川コロダイン 안천고로다인
東京 安川晃榮堂 全國藥店에 有함

中部版

防空講習會開催

【水原】 금년도 제일회수원방공강습(水原防空講習)회를 지난사변이주년기념일에 수원군청회의실에서 일반지도계급을 총동원시켜 천여명이 참집한가운데 대강습회를 개최하엿다는데 「일반방공에대하여」라는 제목하에 수원서고소(照沼)서장의 강연을 비롯하여 방공계획과 방공가지에대하여 동서근동(近藤)경무주임의 자상한지도가 잇섯스며 강습에 순서는 다음과갓다

一、燈火管制에對하여 近藤警務主任

一、防諜과防空通信에關하여 川本部長

土地家屋의景氣는 古風의"福德房"에도 市內만約千五百處突破

사람은 일러만들고 집은업고 그러라고 한대서 지낼수도업고 보니 이틈에끼여서 자연활을보게된것은 토지가옥소개업자인북덕방이다

그래서 힘안드리고 수입은만흔 일로 더구나 노인들의 직업으로는 조흔직업이라 우후죽순격으로 가게가 늘어서 근지내만 하드라도 일천오백은 훨씬 더를파하고 잇는형편이다 여기대해서 경기도 보안과에서 조사한 최근의 집계표를보면 소화십삼년말 현재의 경성시내의 가옥소개업자의수는 일천삼백팔십으로서 그전해인 소화십이년의 구백삼십일명과 비교하면 사백칠십칠명이나 늘고잇서 우항경의 격증이다 따라서이가튼 증가률로써 미루어본다면현재는적어도 일천오백은 훨신넘을것만은의심업는 일이어서 이들을 통제하고 감독하기만도 상당히 무거운 부담이라고한다더구나 집은귀한데소개업자만 늘어가는날이면 여기따라서 여러가지의 폐해가생기게될도 피치못할자연의 이치라 감독당국에서는 근근 편하각서를 동원해서 불량소개업자에대한 단속을 한칭 더 엄중히할방침을 세우고잇다

勤勞報國作業 富川素砂面에서

【富川】 지나사변제이주년기념일을기하여 장부천군수(張富川郡守)이하 청원군수명이 인천서소사까지와서 소사면각단체관민일천여명이 정오부터 두시간동안 소사신사 도로와 경인도로의제초등 기타 미화작업을하엿다

素砂面記念式擧行

【富川】 사변이주년기념일을 당하여 아침구시 소사신명신사대전에 장부천군수이하 각단체관민 일천여명이 참집하여 국가합창 궁성요배와 치어부득천 물자영령에 대한 묵도가 잇슨후 국민정신총동원련맹이사장 신부정웅(神部正雄)씨의 식사와 장부천군수의 고사가잇섯다 이어서 선서문낭독 황국신민서사 제창후 만세삼창리에 기념식을 엄숙히 거행하엿다

俞壽濬氏送別會

【水原】 지난육일밤아홉시 수원종로유치원(水原鍾路幼稚園)안에서 유수준(俞壽濬)씨의 송별회를 열엇섯다 수원종로교회 직원을 비롯하여 매향(梅香)삼일(三一)두학교 직원들과 지방유지들의 다수 참석하에 고봉성(高鳳成)선생의 사회로 개최하엿섯다 유씨는 사변전에 수원군청에 래임한이래 군청사무는 물론 교회사업을 돕는한편 일반사회를 위하여 직성가첨으로 공로가 만흔이로 이번양평군권업과장으로 영전되어 떠나게됨을 매우애석히여인다고한다

仁川北部幹線道路에 街燈急設을要望 府當局의處置를注目

【仁川】 작년부터 공사를 시작한 북부간선도로는그로(福)이상 당히 늘어나고 최근통행량이 상당히늘엇스며 따라서 밤이면 야시장에 다니는 북부부락민의 유일한 피서지로 밤이통행인이만어 낫부의 통행량과비교해서 별로히 차이가 업슴에도 불구하고 아직가등이 한개도 업서 부락민의맛는통편이 적지안허 부락민의원성이 늘어간다 그리고 야시장은 한개의 전등으로가개만 쓰게되므로 불편도로에 야시상만이 겨우밝으나그 건너편도로는 마치암흑가나다름이업서 풍기상으로좃치 못하다하여 부락민은 부당국에 대하야여가등 급설을 요망하고잇다는바 부당국에서는 장차이곳 가등가설을 어떠케 할른지 부락민의주목을 이끄는바이라한다

娼妓올린詐欺漢 綻露되어仁川署에被捉

【仁川】 인주를 인천부대화정(大和町)이백이십오번지에 잇든 양재원(梁載元)(二七)은 지난유월이십일경에 부내부도정(敷島町)에잇는 신흥루(新興樓)에잇는 창기채선(彩仙)(二二)을 속여 금천원을 사취하여 그돈으로 전기채선의 회대를 물러준 사기사가 인천서에 체포되엇다 그내용을 들은바에의하면 전기양은 채선의를 강복백원을 가파주리이니 자기와 기치잇자고 채선을꾀이고 나중에는 무리명복하게살자면 살음들어야되는데 그비용은 여자의몸이라야 부처님이 감동하여 부자도될수잇다고 갖은리설로속여서 그돈으로 회대를 가파준것이 어실함이나 뿐다 전기채선은 한두번도 아니고 취업차 래로와서 오원내지 삼사원씩가저고게다가 나중에는 채선의여 틈웃가게 전당잡힌것이 십여원에달하므로 그제야속은 줄알고 인천에서 고소를 한것이라한다

구직이 사실상명이나 이것도구인수보다 구직수가적엇스며 취직은 사실상명이 전부갈대로다 가게 되엇다하며 이로보면 종소회 개설이래 처음보는호성적이라한다

軍事映畫盛況

【長湍】 장단군에서는 지나사변이주년기념행사로 영화를통하여 일반정신의작흥과 시국인식의철저를 도모하고저 교화사업의 일반으로 지난칠일오후 반부터 장단군청후정에서 군사영화 무한공략전 최근북지 황군 시국뉴ー스 만화등을 상영하여 일반관중에게 다대한감동을 주엇다고한다

楊平서도祈雨祭

【楊平】 경기도 양평지방에는오랫동안 한발이계속하여 모든은 거의전부가 귀렬되어 모가고사지경에 이르럿스며 기타전곡등도 철명상태에 이르럿슬뿐 아니라식수까지 고갈되여 큰곤난에 빠젓스므로 일반이심은 불안중에잇다 양평군 농회에서는 이외대책을 강구하면주 지난칠일에양평군수 경찰서장 각면장등 유지신사가 출동하여 성대히거행하엿다

水原勤勞報國隊 二千餘名總出動

【水原】 지나사변이주년기념일에 국민정신총동원 수원련맹(水原聯盟)에서는 각애국반 이천여명을 동원시켜 동일오후사시로부터 두시간동안 각처지정한장소에서 작업을하여 만흔성과를 거두엇다

低物價政策은말뿐 穀價는依然騰貴 仁川港六月中의都賣時勢

【仁川】 금번인천상의조사한통계에의하면 지난유월중 인천항의 도매물가를 살피건대 총평균지수에잇서서 지난달보다 약일분가량의 분등을보이고 잇다한다 이것은 곡류(穀類)에잇서서 일할육분이나 분등되엇다 그리고 다른물품은 보합(保合)내지 저락을 보엿것만 결국 총평균지수에잇서서 전기한바와가치 일분의앙등을보앗스니 저물가정책도 하등의 소용이업시 무색하게되엇스니 일반이밧는영향이 적지안흐리이다

利原草刈選手權大會

【利原】 함남이원군 농회에서는 이원초예선수권대회(利原草刈選手權大會)를 오는칠일부터 이원신사경내에서 개최하엿는데 금번선수로 뽑힌사람은 본도에서 전함남선수권대회에 참석한 것인데 그선수의씨명과 당일수상자는 아래와갓다

靑年部 優勝一席 鄭敏燮　二席 李任洙　李柱楨

壯年部 優勝一席 金任洋　準優勝一席 李夢任　二席 姜斗洪

地方人事

▲赤羅瀧氏(楊平郡勸業課長)三日來社水原支局來訪

▲長瀨政六氏(抱川郡內務課長)同日來社水原支局來訪

軍事講演

【富川】 국민정신총동원부천련맹에서는 지나사변발발 제이주년기념일을 마지하여 일반에게 시국에대한인식을 심각케하여 사변수행과아울러 동아신질서건설에 매진코자 지난칠일오전십시 소사남소학교(素砂南小學校)강당에서 관민약백여명 참석하에 아래와가튼 연제로 약 두시간동안 강연이잇슨후 정오에 산회하엿다

一、講師 (元)朝鮮新聞社政治部長 小坂貞雄

一、演題 戰線을생각하고

烏山小麥共販 十八日부터開始

【烏山】 오산에서 소맥공동판매는 예년과가치 오산농업창고에서 오는십팔일부터개시한다

典當舖는골고 古物商은수낫다 ☆……事變景氣가가저온世態

통계에나타난 경성부의 사변경기——서울의 전당포는 줄엇고 고물상은 늘어가고잇다 경기도보안과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작년일년동안에 경성시내에잇든 전당포로서 영업성적이 조치못하여 폐업신청을 제출한 전당포는 상상이상으로만하 전년에비하여 육십칠개소가 감소하여 현재이백삼십이개소로 되엇고 고물상은 재작년에 이천이백오개소이엇든것이 작년일년동안에 일백삼개소가늘어서 이천팔백팔개소가 되엿다 이것은 사변이후 쇠붓치 녀마등속의갑시 뛰자 오른 덕택에 고물상은 성하고 사변경기로세민층에 잔돈푼이 잘돌기때문에 전당포를 찾는 사람이 전보다적어섯고 또한편에는 금붓치등속이 거리에서만히자최를 감추는결과나가는물건이 전당포에들어오지안허 전당포는 점점기틀어가는형편이라한다

伊川元山間 電話直通要望

【伊川】 강원도이천군읍내는근년에이르러 비약적진전을하여 강원도내에서는 유수한도시로 전등가설 시내전차는물론 장차임진강상류의 수력전기발전과 철원을기점으로하여 북부중앙선의개통을 보게될것이므로 더욱더 발전상기대되는바가 적지안흔데 이천읍내에서 각지에 전화가될수잇는데 특히원산(元山)과의즉통전화가업서서 상업발전상 취인상이징이 막대하므로 금번이천상공회(伊川商工會)에서는 관계당국에 이천원산간 전화의즉통을요망하여 소기의목적을 달성코저 진정을하고자 방금준비중이다

水原鍾路敎會에서 聖戰二周年記念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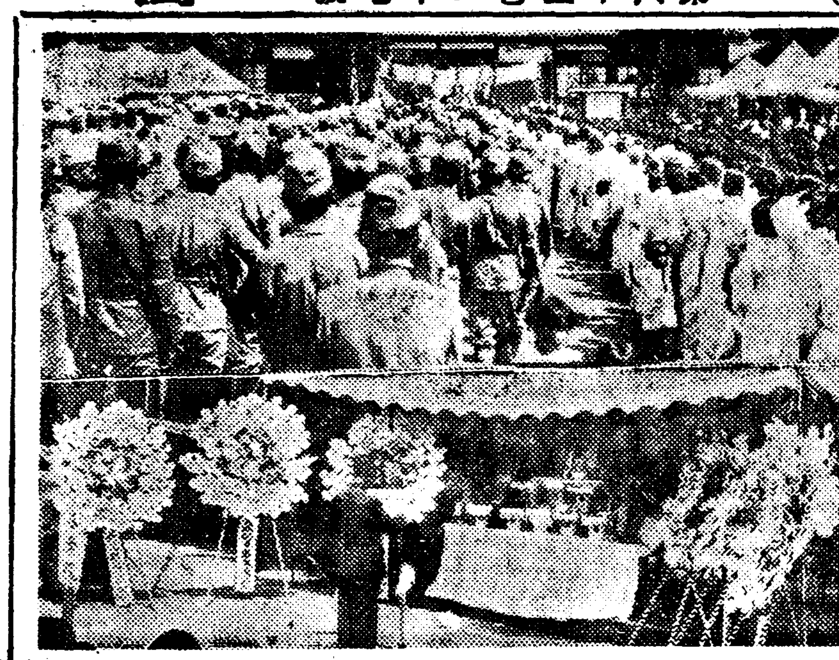
【水原】 지난칠일은 동양의영원한 평화를목적으로하여 성전을 시작한 이주년의돌을 마지하는 날 오전칠시에 수원종로교회(水原鍾路敎會)에서는 신도백삼십여명이 모히여 기념식을 정숙히 거행하엿다는데 특히 황실의 번영과 전몰장병의 영령에 위하야 조상문(弔相文)강의사의 정성된기도로 폐회하엿다

永登浦에서도 獻金과祈願祭 聖戰二周年記念日에

【永登浦】 지난칠일 지나사변제이주년을 당하여영등포에서는다음과가튼 기념행사가잇섯다

▲영등포음식점조합(永登浦飮食店組合)에서는 조합원사백명은 오전여섯시 조선신궁에참배한후 황군인문들으로 수건이백장을 헌납하엿다

▲경기도장로교영등포교회(京畿道長老敎永登浦敎會)에서는영등포정교회(楊坪町敎會)도림정교회(道林町敎會)의 신도와 영창학원(永彰學院)흥화유치원(興化幼稚園)아동팔백명은 오전아홉시부터 영등포정 영창학원 교정에서 영등포교회 주최로 사변기념식(事變記念式)을거행하고 식후일동은 기념촬영을한뒤 정오에영등포신사에참배하엿다



(사진은 支那事變記念式과 深見中尉慰靈祭光景)

支那事變二周年 記念式과慰靈祭

【長湍】 지나사변발발이래 벌써 이주년기념일을 마지한 장단군에서는 장기전하에 잇는 총후의강화를 더욱공고히하는동시에 사변의 천도에 불귀의객이된 영령을 위로하고자 지나칠일오전십시부터 장단보통소학교교정에서 관민청년단원 보국대 소방조 부인회원 각학교생도 수천여명 참집한가운데서 기념식을성대히거행한후 금번사변에 호국의신이된 본군출신 고심견중위(故深見中尉)의위령제를엄숙히 집행하엿는데 당일참집자는 멀리 지나대륙의 엄천하에전전을 거듭하며 신산한맛을 보는 제일선장병의노고를 생각하여 감사한뜻을 표하엿다고한다

支那事變記念日에 銃後國民의熱誠 仁川署에國防獻金遝至

【仁川】 국방헌금일속——지난칠일의 사변이주년을 마지하여총후국민으로서 이날을 의의잇게 보내고저 다음가치 국방헌금을 인천서에 바치엇다 부평(富平)홍중(弘中)상공회사경리계주임 김석기(金碩基)씨는 창녀가사망하엿스므로 동광장 종업원이 향전료(香典料)로 자다손들일백십원을 인천서에 헌금으로 내노헛다그리고 경정(京町) 이백십삼이번지에 사는 강두신(姜斗信)씨도 이날을 기념하기위하여오백원을 국방헌금으로 인천서에 바치엇스며 용운정(龍雲町)에잇는 백학장(白鶴莊)주인 최철(崔鐵)씨가 여급과 공동으로 삼십원을 인천서에 기탁하고 국방헌금에 보내달라고 부탁하엿다 그리고 만석정(萬石町)칠십이번지 황명운(黃明雲)씨가 오원을 헌금으로 인천서에보내엇다 금곡정(金谷町)십칠번지에사는 이규동(李圭東)씨로부터 오십전을 보내엇스며 부도정(敷島町) 사는 겸전미좌자(鎌田美佐子)가 현금 이십칠원을 국방헌금에 보내엇다 주안정(朱安町)육십이번지 고용녀일동과 음식점 주인등 십오명도 이십일원을현금으로 보내엇스며 또는저소개업조합원일동도 여십원을 헌금으로 보내엇는데 이날기념일을 당하여 인천서에 들어온헌금만 천여원에달한다

就職成績良好 仁川紹介所集計

【仁川】 약진도상에잇는 인천항의 여적지원부속을 느끼다한은 어미 본보에 수차보도한바와갓거니와 지난유월중의 인사변동은 엇더한가를 인천부직업소개소의 통계로보면 구인(求人)이 일백팔십사명에 구직(求職)은 이백사십팔명에 달한다 그중에서 취직된것은 일백십구명에달하엿다 이로보면 구인에대해서 취직자의 적은 으로보

無聊한夏期放學 各種講習會에總動員 小學教員爲하여京城府主催로

경성부에서는 긴여름방학동안 소학교 선생들을 좌기각종강습회에동원하여 뜻잇는 휴가를보내기로되엇다

▲敎練講習會 自七月二十三日至三十一日九日間、七十九驛隊參加人員三○○名

▲初等教育講習會 自八月一日至三日 三日間、於櫻小學校、科目=國語、算術、體操、教育原理

▲武道講習會 自八月十一日至十六日 六日間於京師

▲數學刷新講習會 自八月十四日至十八日 五日間於南山小學校

▲女教員研究發表會 自十七日至十八日 二日間於南山小學校發表人員四二名

稀有의大少年窃盜團

【江陵】 아직년소한 미성년들로된 희유의대절도단이 지난달 강릉경찰서에 검거되어 목하강릉검사국에 기소되엇다 그들은 강릉읍대화정(大和町)이십오번지박개동(朴開東)(一七)외수괴로 열한두살 내지십오륙세의 미성년자들로서된 절도단으로 피해자가만흐며 그들성명은 아래와갓다

崔鍾瑞(一七)(江陵校洞) 李福得(一六)(江陵玉川) 李龍伊(一六)(江陵東門) 朴開東(一七)(江陵大和町) 元炳根(一六)(江陵錦町) 朴昌鉉(一五)(江陵龍岡町) 姓不詳瑞起(一五)(江陵龍岡町) 金合善(一六)(江陵大和町) 辛海水(一七)(原州)

機關銃獻納運動 九萬名이一匙節米 七月七日開豊郡民熱誠

【開城】 국민정신총동원개풍군련맹에서는 성전만이주년기념일을 마지하야 근로로 작업구인이 가족적으로 금주단연동절미를 실행하야 그것을 모아팔면 일천여원의 가격이되어 어든것으로 기관총을 헌납하기로된바 절미(節米)한수갑의을거두기로된바 판중일정을사서 군부에헌납하기로되엇다

聖戰記念의獻金 開城에서千四百餘圓 지난七日、個人과商店에서

【開城】 지난칠일 역사적기념일을당하여 총후를직히는 개성상공각단체는 국방금 휼병금을다토아가며 헌납하여 놀라운적성을 보인바잇섯는데 이날개성부청을비롯하여 상공회의소 개성서등 삼개소에 헌납한단체와개인씨명은 다음과가튼데 실로그금액을합하면 일천사백여원의거액에 달한다

▲開城人蔘販賣組合六十四圓五十錢 ▲開城帝帆組合 十圓 ▲開城陶磁器商組合 十五圓 ▲開城文房具商組合十一圓五十錢 ▲開城古物商組合二十一圓 ▲開城布木商組合 四百二十四圓 ▲開城紙物商親睦會三十圓 ▲開城食料品商組合百七圓 ▲開城商議員七人 十五圓 ▲開城穀物商組合七十圓 ▲開城自轉車輪業會十圓 ▲開城製菓卸商組合三十八圓 ▲開城雜貨商組合六十圓八十錢 ▲開城藥業組合三十圓 ▲東洋工業社職工一同三十圓 ▲開城醫師會二百二十圓四十錢 ▲千泉茶房代表金應鎭二十圓 ▲開城齒科醫師會 ▲馬場主百圓 ▲廣代一圓十四錢 ▲金鑛債券十圓券一枚 人蔘袋四個 ▲金瓊淑十圓 ▲開城人蔘同業組合職員一同三圓五十錢 ▲松都中學校十圓 計一千四百十九圓四錢也

素砂各料亭서도 自肅自戒로休業

【富川】 부천군소사면 각요리점 음식점업자들은 사변이주년기념일을 마지하야 자발적으로 자숙자계하야 일일간휴업을 하엿스며 매우 오류장조장(梧柳場)에서는 휴업하지 안흐려든 일부지 양일 금주(禁酒)하라

洋服商協同組合 解散、新組織으로紛糾 舊幹部의專橫에組合員憤慨

【仁川】 인천양복상협동조합(洋服商協同組合)은 지금부터 이십여년전에 조합원일동의 협력으로 조직되어 조합원을 나타내어오든바 지난일일에 조합원에게 통고도업시 돌연히 해산을 하엿는데 그자세한내용을 조사한바에의하면 전조합장 대석(大石)씨는 자기자의로 조합원에게 통고도업시 돌연해산하엿다한다 그래서한 이유는 금융조합과 협동조합을 두면 비문도 마찬뿐아니라 아프로 조합을 발전시키는데 지장이 잇겟다는 애매한 이유이엇다한다 그리고 사무소와 사무원을 전조합장대석씨집에 두고 조합경비로 매월 삼십원씩만 지불하고 또 조합의 출자금과 적립금을 모두 차저내서 모든양복원료를 구입하여 배급소를 자기집에 두고 일을하자는것이엇다한다 이러한사항을일반조합원과 간부에게는 통고도업시 메메우천간부와만 협의하고 거이독단적으로 모든일을처리하엿다 한데일반회원들은 이를 철저모르고 금융조합에서분리시키는줄만 알엇다가 그후전기사실을알고 조합원측수십육명중 구명이 조합장행동에 분개하여 전협동조합을 그대로계속하도록 금융조합에 교섭을 하여 금융조합연합회와 경기도의 양해를거쳐 협동조합을 수입천내 새로조직하고 박복만(朴福萬)씨가 조합장이되고 감사에는 금융조합이사상야진일랑(上野進一郞)씨와 오흥룡(吳興龍)씨가피선되고 이사에는 강인성(姜仁成)이종국(李鍾國) 양씨가 선정되엇다 이러한 새 조직으로 양복상 협동조합은 더욱 공고히되자 새로가입하는자가 부쩍 늘어서 불과수일내에 이십오명에달하게되엇다 이사실을안 전조합장 대석씨측에서는 따로인천양복상조합(仁川洋服商組合)이라는간판을 걸엇스나 뜻대로되지안하여던지 다시 아래와가튼 통첩을하엿다

一、우리가아니면 양복전문들어 들수업는것

二、우리가아니면 협동조합을유지할수업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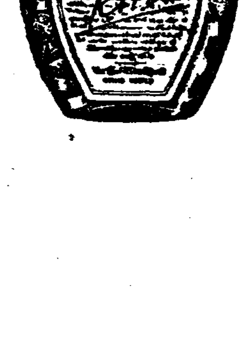
三、우리는 무식하고 자력업는 조합원을위하여 가입한다

는등 한편회원은 절대로 그들의가입을 불허한다는 통고문을 신조합장 박복만씨명의로 발송하고 신간부측에서는 강경한태도를취하자 구간부들은 이에대책을강구하는중이라는바 아래와갓다

新協同組合長=朴福萬氏談 이는참으로 분합니다 자본업는것을 너무나연약히녀인것이 그리고 그네들이 아니면협동조합을 유지못한다고 하나모든것은 돈으로만 되는것이아니니까요 우리무자력한 조합원들이성심으로 일치협력만한다면 무엇이든지 안될것이업습니다

舊組合長=大石氏談 아직해산은 아니 되엇습니다 도에서정식으로 인가는업습니다만는 어제협동조합연합회와 경기도에서 조사원이 와기로 되엿스니 조만간 모든것이 잘되겟지요 운운

005323



著名大病院醫院御採用

盛夏！惡疾이蔓延된다!!

몸의抵抗力이衰退

되고 疲勞되기쉬운무더운여름철에는 氣溫의關係로 病原菌의跳梁이 旺盛하므로 여러가지惡疾——傳染病이蔓延되는데 그中에서도 腸疾患이第一만흡니다。不幸히腸疾患에걸녓을때 一時的鎭痛劑나泄瀉藥을使用하고治療를잘못하면 生命을앗기는경우가적지안흠으로 効驗이

徹底한乳酸菌製劑

를服用하야 根本的으로治療하지안으면안됩니다。乳酸菌이라할지라도 効力을發揮하는것은 그製劑에含有된乳酸菌의生活力에依하야左右되는것인데 本劑『비오훼루민』은 가장生活力과繁殖力이旺盛한短桿狀菌과糖化菌을含有시킨優秀한製品임으로。腸內의腐敗와異常醱酵를防止하며 有害細菌을殺滅하고

腸機能을根本強化

시키며 腸內澱粉及蛋白質을消化시키는等々의卓越한作用을가젓으므로

一、傳染性腸疾患——赤痢、虎列刺(怪疾、虎疾)、腸窒扶斯、바라지부스、腸結核。

一、腸內異常、急性及慢性腸加答兒、泄瀉、常習便秘症、鼓腸症、消化不良。

一、小兒腸加答兒、消化不良、綠便。

一、榮養障碍를이르키는慢性症 即結核 糖尿病

一、早老症、卽腸及諸血管硬化症、萎縮腎、急性及慢性腎臟炎、肝硬化症。

等의豫防과治療保健에卓効합니다。

粉末과錠劑・全鮮藥房에잇습

ビオフェルミン

비오훼루민

發賣元 大阪市道修町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京城出張所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一〇六

製造元 神戶市二番町 株式會社 神戶衛生實驗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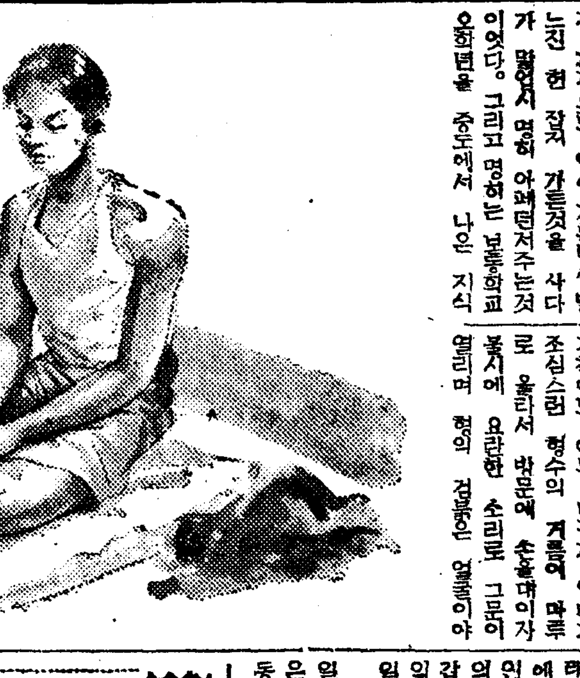
武田發賣品

39(1)513

短篇小說

綠星座 【21】

玄德 作 鄭玄雄 畵



동민에겐 명히의 존재처럼 어(?) 세상에 잇서 애련한것으로 보이는것은 업섯다. 아동 잡지의 동화를읽고도 그조선(?)한 세계에 꼿 동감이 되어 동경에잠겨 번 눈을뜨고 눈물을흘리고 하는 소녀도 동민과 같은 처지에 잇서 행복의 미웅(?)바 지가 되든 처지가 젓다는것외에 가튼 풍옥가든 어떠케 자기와 영을 가치한 동류의 인간을 대하는듯 나어와 위치를 떠나 감정이 가치 하여젓다. 그만치 형부부의 위험을 그대로 바다 오크리지는 그거 애련하엿고 또 그것을 즐기는것처럼 자기네들의 희롱을 푸는 대상으로삼는 형 부부가 극악한 적으로 보엿다. 어떤때면 동민은 그 의분에 겨워운 분한한 감으로 부풀은 가슴을 풀려는 돗거리를나가 돌맛고 그 나머지 감정으로 야시 가튼데서 달느진 헌 잡지 가튼것을 사다가 밤이새 형히 아래던져주는것이엇다. 그리고 명히는 보통학교 오학년을 중도에서 나온 지식

를 가슴기피 마시엇다. 동하며 자기집을 향해갓다. 그러케 자기집 비탈 충충대를 한층 두층 올라가면서도 저에 가까이 향해가는 집 마루 벽사처럼 가슴에 도근거리는을 가지고 그것을 누르고 남은 힘을 모아 다단히 만든 궤시설을 가지고 거츨게 들어선 대문안은 쥐 죽은듯 잠잠하다. 마당엔 불하나없서 어둡고 그아 물가리지 못할만큼 캄캄한 여둠 그것이 또 한가지 형의 자기를 향한 인(?)인듯 동민은 동솟기가 서늘하도록 냉기를 느끼엇다. 지금 형은 불 꺼진 방안에 봉영이처럼 눈을 끔벅거리며자기가 돌아올때를 거다리고 안자잇거니. 그러나 동민과 그뒤를 따른 일행이 마당을 들어서는 인ㅅ기척에도 아무 대꾸가 업다가 조심스런 형수의 거름이 마루로 울리서 방문에 손을대이자 봉지에 요란한 소리로 그문이 열리며 형의 검붉은 얼굴이야

으로 구석구석 어머니의 눈을 피하여 숨어안자 엙고는 그세계와 현실을 바꾸어 자기가감격한바 외국 동화의 의분운기사(騎士)를 분든 눈으로 동민을 올려다 보는것이며 동민은 동민대로 또 여린 조카 명히를 지키는 의분운 기사로써의 임무를하엿다.

마침내 동민은 그명령의 버명에 견디지 못하겟다는듯 오렌 침묵과 부동의 자세를허러 챗하고 거츨게 쥐 끄를한번자며 동시 한거름 크사이를 나가 막고는 명히를 등 뒤로돌려 멀리하고

『가십시다. 자세요』

거진 명령을 하는어조로 명히의 손목을잡아 이끄는 그것으로 형수그를 여끌듯 자기겨어울서 거롬을 옮기엇다.

그러자 형수는 또 그러케동민에게 손목을잡아 이끌리듯안잣던 자리에서 몸을 열으켜그뒤를 따라가며 그것이 또한그에게 이끌려 가는 어색한 감정에서이라랴.

『너구 나구 나게 죽장 나가 죽어. 우리 두놈 업서저면 고만 아니냐』

등 그침 업시 발하는 그말과는 반대로 거룸은 동민이 이끄는 방향을 따랏다.

어 소리한 일행을 어쩔고 가는 동민은 마음속에 자기 형에게 대한 단단한 전투의식을 준비하며 그 위용을 재추는듯 『와아자!』 아룹 해친 가슴을 그대로 밤아침게 헝성한 공기

수처럼 뛰어나오리라는 예기와는 반대로 들리나니 뱃안 감감한속에 코를 고는소리.

동민은 주먹을 단단히 쥐는 지경을 버티어야할 일종 자포적인 허무로 바꾸며 그 동작을로 거둥게 구두를 벗고 자기 처소로 정한 건넌방으로 들어가 내버리듯 양복 조고리 양복바지 하나하나씩 벗어 방바닥에 동댕이첫다. 그러면서도 그일면에는 형의 얼굴을 보지안케된 안심이 엇저안코 내일아고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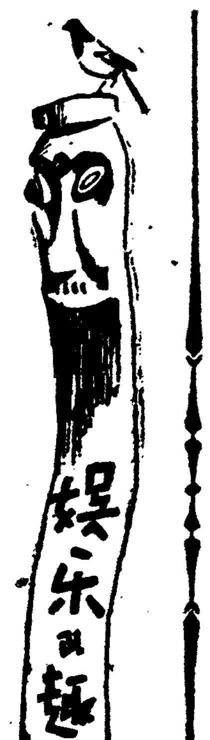
때고 어느때고간에 자저가 나타나는 장면에는 그러케 큰를 풀아 주엇스면 하는 소원이언지 얼마.

그러나 동민의 고소원은 계우어든날 어른 아츰형의 출근시간에 어른기절까지의 하로밤을유지하엿슬따름이다.

어른날 아츰 전날밤의 격근 일은 신변정에 일동듯 형수는

어느때다툼없서 제때에 일어나 아침즈비를 하느라 부어케서 그때거리고 또 그러케 느티진 기지개와 함께 장을를 빵은마루로 나오자 아우 동민의 벗어논구두가 눈에 띄이며 동시 어제 일을 회상한것이리라. 그 눈 곳 어제의 그뒤꾸리를 엄굴에 지으며 동민이 자는 건넌방문을 거총게 열어저치엇다

娛樂과 趣味



『빽』을잃은協同藝術座

具乙會氏·突然後援을拒絶

시내의 각신극단체를 대동단결할듯한 기세를보이며 동창한 『협동예술좌』는 드디어지난유월이십육일로서 창립발기회를엽엿다 그배후에있는 경제적후원자로는 국민문화연구소(國民文化研究所)가잇다고 전해져서그 장래가 주목되더니 벌서부터부민관(府民館)에 창립제일회공연의날짜도 잡아노코 『하이델베르히』톨산연극본도 결정하고연습에열중하여 극단의 경제적후원자인 국민문화연구소가 어극단과의 모든관계를 끈케되엇스므로 갑자기지반을잃은 『협동예술좌』의멤버들은 일시조에 그진로를 잃고방황하게되엇다 한다

애초에 국민문화연구소가 우선제일차로 출자를약속했다는 금액은 삼천원으로서 그중에서 『협동예술좌』 창립당시에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현금오백원을 내노핫된것이라한다 그리고 잔액어천오백원은 실지사무를 시작하면 꼿지불하기로 서로약속어되어잇섯던것이라한다

이에대하여 극단편과 국민문화연구소측의말을들으면 각각아래와갓다

過信이不幸

國民文化研究所主事 李化三氏談

국민문화연구소 소장구을회(具乙會)씨와 삼천원의 출자를 계약하고 그동안에 벌서 오백원을 내노핫는데 지금에와서 관계를끈키로 하엿다는것은 말하자면 신의문제로서 얼추없는일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구씨의 여러한성한 태도에 문게하고 단호히해도를 저할까도 생각하엿서 잇습니다만 만약 그러케된다면 개인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자미업는경과를 가저오게 될것이므로 얼채국으로하거로 하엿입니다 하여튼 그런말을 때뎡던 우리보다가질못이겟저요 그러나 창립공연만은 어떠케든지 할작정입니다

『전혀 모르는일』

國民文化研究所長 具乙會氏談

협동예술좌에서 어무테나구을회를 내세우고 뭐니뭐니하는것가트나 사실무자이언 나는 전혀모르는일입니다. 창립당시에 우리국민문화연구소에서 경제적 후원을해주겟다고 허락하엿다는말이나는 전혀 들어본일이업고 나중에게약서를보고서야 알앗던것입니다. 그러나어 계약서란 것도 정작 소장(所長)인 내가 모르고 제작된것이니 무슨소용이 엿겟습니까. 여사회도 통과하지안흔 계획이니 우리게 무슨 책임이 엇스며 그게약이 무슨 소용이잇습니까 어일로해서 판게여사들은 여며사표를내노핫읍니다 처번에 우리가 배노핫다는 오백원이란 돈도 나모르게저줍된것입니다 하여튼 여러한 실수를한것은 물론 나의 잘못이겟지만 협동예술좌 여려

凸問凹答

【問】까마귀의 최대 비상거리(飛翔距離)는?(京城—?問)

【答】편지가 부전 어부러 되 돌아 오는것

前回의 【問】 금의화향(錦衣還鄕)이란 무엇인가

毘盧峰을白雲間에두고 "靈山아잘잇거라"!

歸路過次의淸川浮帆도반갑다

第六日

▼…말만들어도 겁신어아질해지는 비로봉 정상에 오르면 백운은 어느때나 산중복에서 나타오고또 나라가고잇서 어야말로 참말 별세계일것이며 백운을타고파 연 우화등천(羽化登天)하는감이업지안허 상쾌한행동사를표현하기 곤란하며 묘향산을찻는 탐험자로서 비로봉에오르지못하면 탐험내지 탐험을이야기할자격조차업슬것이다

▼…어려뜻 웅호한비로봉을 정복한후 잠시쉬위판을 전망하면서 점심으로기운을 회복해가지고다시 비로봉아잘잇거라하직한후 주봉한산스길을 더끄러저 부펀을향하여 산능을라고 백엽나무를 헤치면서전진하면 여기서부터는 험한 사람이 업기때문에 길을차자올수업서 어떤 우리탐험대행의 노력으로 비로소 『코—쓰』가 개척될것이데 부용봉을 향하는 중 무명봉(無名峰)에서 재삼야의 『캄프』생활 맛게되는것이다 아직며지수에 숙해잇기때문에 어떠라고할상식을 못가젓스나 『코—쓰』연선일대가 전부경이의표적이될만침 신기하고 선비로울것만은사실이며 이무명봉에서 다시하범을 지낸후 부용봉을향하여 새길을 개척하면서맹진하면 부용봉에 도착한다

第七日

부용봉에서 잠시사위에 전개되는 경개를 소요한후 금선대(金仙臺)에향하여 여기에서 『캄프』재사야를 마지하는데 충비로암에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천연운수를 어둘수업서 음료수를 운반하기위하여 만혼이보를 요하며 인부의능에업허여 운반되는물이 아팔로 대사막에서 엇는물과 조금도 다름것이 업는실로

第八日

금선대에서 처총 『캄프』생활을한후 묘향산을 하직하고 산을내리기 시작하여 추도에 점심을 마치고 제팔일오후네시까지에 만포선(滿浦線)보성역(寶成驛)에 도착해가지고조금 쉬이다가 가트네시이십이분 부성역을출발 오후여덟시삼십오분에 평양에 내려 잠시 평양시가를 구경하면서오레간만에 도시풍정을 맛긔한후 그날밤 열한시십분 경성행열차를 바꾸어라고 차속에서 밤을지나 제구일아침 일곱시이십분차로 경성에 돌아오게되는것인데 칠월에서팔월에걸쳐서 『계절의선물』이라고할수잇는것은 강우일것으로 청명한날에 바라보는 산악미가 아름답다고 하다면비오는날 바라보는 산악미는 엄총의 예수에 잠긴듯한 더아름다운 경관여 틀림업슬것이며 운무에 굽게싸힌 봉련의 원경이란더욱위관을 어루어 여 멋든 한천하지의 경면이 전개될것이다

▼…조금뭐 바뀌는듯한 느낌여 업지안치만 부성역에서 남행만포선을타고 차창을 기대어연주면 선로연변에 전개되는 청천강과 강안의 승경도 결코범연하게흘때할것이못된다 여름그대로 수정가치맑은청천여 낼실거리는경우를 한자스럽게 여기어자노를저어가고잇는 범선이라든지 너무도유명한 청천강의은어를 노리고잇는 늙은태공망의 조울고잇는 풍경들도하나도 노치여서는안될경관이다

펵도 노출한소개이지만은그래도필자가 보사평남지사에잇섯슬때에 쟝사차답사한 경험이잇고 또어 『코—쓰』를 정하기위하여 쟉, 사일간을 현장에가서 보험사간부제씨와 산안내에다년간 경험이풍부한 안내인수명을만나 조사한터이라 상당히 자신어잇다는것을 자인하는터이나 비로봉에서 금선대에이르는 사이는 유감이나마 아무도자세히것을 아는 사람이업서 미지수에 돌리고 말게 되엇다 물론다른 방향으로 당파할『코—쓰』도 업지안켓지만은 여번보사에오결행하려는어 『코—쓰』야말로영변의약산동대(藥山東臺)천주사(天柱寺)용문굴(龍門窟)까지를 집어넘흔만큼 가장탐험지적가 풍부한것만은 틀림업스며 때가바로 우리심사오륙일경이므로 명랑한달빛마져서 『캄프』생활에 극히편리하게되엇다

대지를밟고 대기를호흡할하이카—들이 아플다투어 이번 쾌거에 참가할줄밋거니와 이제간단히 탐험여가는 구일간의 일정표를소개한다 (了)

妙香山코—쓰 …⑥… 金晩炯

◇本社主催妙香山探險日程表

▲七月廿五日午後一〇、一〇京城發(車中泊) 同廿六日午前七、五九价中里着 同午前八、〇〇价中里發(自動車) 同午前一一、四〇寧邊邑着 同午後一、四〇寧邊邑發(自動車) 同午後四、五〇鍊龍窟着 同午後七、三〇鍊龍窟發(自動車) 同午後八、〇〇球場着 同午後八、一四球場發 同午後八、五三妙香山驛着(泊) ▲七月廿七日午前八、〇〇妙香山驛發(徒步) 同午前九、三〇普賢寺着 同午前一〇、〇〇普賢寺發 同午後〇、一〇上元庵着 同午後二、一〇法王峰着 同午後四、〇〇法王峰發 同午後七、〇〇普賢寺着(泊) ▲七月廿八日午前八、〇〇普賢寺發 同午後六、〇〇下毘盧庵着(캄프) ▲七月廿九日午前八、〇〇下毘盧庵發 同午後六、〇〇圓滿峰着(캄프) ▲七月卅日午前八、〇〇圓滿峰發 同午後六、〇〇無名峯着(캄프) ▲七月卅一日午前八、〇〇無名峯發 同午後六、〇〇金仙臺着(캄프) ▲八月一日午前七、〇〇金仙臺發 同午後四、〇〇寶成着 同午後四、二二寶成發 同午後八、三五平壤着 同午後一一、一〇平壤發(車中泊) ▲八月二日午前七、二〇京城着

(사진은 九層瀑)

新映畫

廿世紀폭쓰映畫

아—리—바—바 女都로가다

에디·칸터—主演

【解說】 우리가잘아는 『에디·칸터—』 주연 영화로서 원작은 『조·라운』 『그레암·배어커—』 『진·파울러—』가 공동집필하엿고 감독은 『데이빗·뉴컨드』와 『자크·에·펀』이 역서 공동으로 한것이로서 『테넷슨·패롤터』 감독여이고 『로—런만보(天國로步)』의 『로—런드·영』 『소공자(小公子)』의 『미—저니아·필드』 『하—리켄』의 『푸—루카라디인』등출연한다

【梗槪】 영화광 『알·바프스』는 『스타—』들의 차인을 바드려고하 몰래가팔라고 『컬리욧든』 촬영해자든중 잘못하여 광원에서멀어진다. 그리하여 할수업서자막을걸어가다가 『아리비아』면을 만나서 도망꾼의 거리엇스나 꼿은 어는도회의 거리엇스나 그것은 『토케—술』 대잭 만듬어세운 『셋트』엿다. 고래서그는거기서『에쓰트다』 가되엇지만 도망을하는장면에서 잘못하여 부상을 당하고 강으부터부리 약을어더먹은것이 도를넘처서 행아리ㅅ속에 들어가 자기의나간자래도이저버리고 잠이들어버린다.

이꿈꾸는 동안에 일어나는 가지가지의 꿈속의 이야기가 즉이영화의중심『스토리—』다 (十日부터市內明治座에서 松竹映畫 『곳잇든雜草』와同時封切) (사진은 『아리바바』의 一場面)

라디오프로

九日(日)

▲午前六時(東) 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 ... ▲正午(東)時報 ▲午後零時五分(東)新人選手—는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 하—모니카合奏 하—모니카·하—모니카樂團 ▲同一時三〇分 四○曲 張撥 金敏 ▲同一時 全國都市對抗野球大會第二次豫選實況(京城)—京城球場으로부터中繼 ▲同二時 蹴球試合實況(咸興) 『朝鮮蹴球選手權大會決勝戰』全咸興對全京城—咸興公設運動場으로부터中繼— ▲同四時 뉴—스 ▲同六時三〇分 노래공부(二) 『풍경』 金東千作曲 決 顧 惠 ▲同七時五分 ... ▲同七時三〇分 뉴—스 ... ▲同八時 라디오드라마 ... 實金一英唐 東晋 給仕李錫 ... ▲同八時四〇分 音律 寶山會相 ▲同九時 日本音樂鑑賞(國코—드) 第七回解說付 『義太夫와常磐津』 一、義太夫 ... 寺小屋 ...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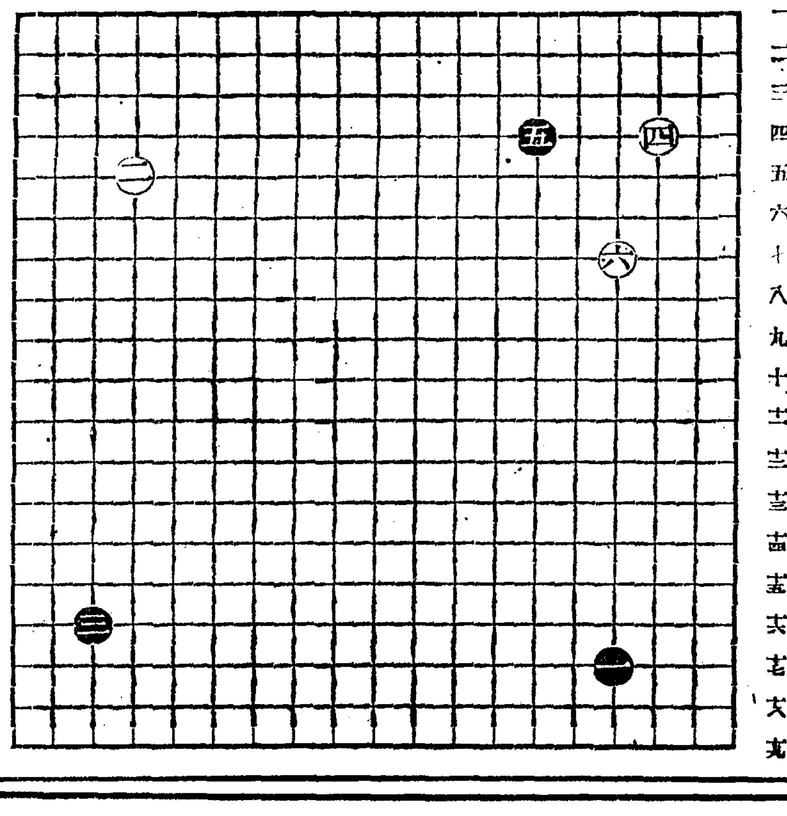
第一放送 ▲午前九時三〇分(東) 하—모니카와오르간二重奏 揚緣和男 ▲同一〇時(東) 耳國回顧(錄音)

歐米西部向海外放送 ▲同一時五五分(東)國內아나운스 ▲同三時(東)歌謠組曲 ▲同六時音話劇 『深堀大尉』 中山海作 ▲同七時三〇分 (大)日曜時事 ... ▲同八時(東)浪花節 ... ▲同八時三五分(大)獨唱 ... 山一郎 ▲同八時五五分(城)新日本音樂 (平壤人中) ▲同八時五五分 尺八合奏(釜山) ▲同八時五五分 長唄(咸興) ▲同八時五五分 謠曲(淸津) ▲同九時一五分(東)邦樂名曲選 (第四回) 雲元

素人對碁戰 【1】

白 金洛德

黑先 全洛奎 (四目半出)



一● 丁의十七 二○ 巳의十五 三● 午의十六 四○ 丙의四 五● 己의四 六○ 丁의七

親戰評 權秉郁

新人登龍門碁戰

四隅에布石陣을構築

本社主催 朝鮮棋院後援下에 新人爭霸碁戰이 第七回로 開催되엇다 모처럼 出馬의 榮을獲得한은 金洛德 全洛奎兩氏인데—兩氏는 모두壯年信望家로서 碁道의 要塞여 貴俗하여 平日干城之名을 날리와다. 때마침 七月六日 苦炎熱찌는듯한 해볏아래에 白熱的戰火가 相交하니 在傍觀手의審査와 觀衆의注目을 最高潮로고올어와 揮汗成雨하나 참으로壯하고도 보기에緊張味가충분다 安得淸風하여 以滌煩熱될까? 아서라 牛溲馬渤이나마 批文을 써보자! 初陣布石에들어서 兩氏의碁性을 槪論한다 白은 淳實하고 揃오嚴硬하여 며처 蚌鷸相持와가치 相戰에는 조금도讓步가업서 始終을貫徹하엿다 黑一丁의一七『小目』과 白二巳의五『高目』은 彼此間反對方으로 定石原理에符合된다 그러나 黑三이二重小目으로午의一六에 排着하니 이는木谷氏의 專用條法이나 碁格에는좀무어한듯 白四가또丙의四로同一한陣法을取하니 適切치안흔바는아니나 차라리 戊의三『目外』로肝戊하엿스면어떨까黑五가己의四二間飛로應着하니 이도布石의 手順이고 白六이丁의七로『大斜走』할도 괴치못할 定手이다 現局에 四隅에布石陣을 構築하여 未來의風雲變化를 미리짐작하고 待機出動할 姿勢를表徵하고엇다—